

농촌노인부부의 삶에 나타난 ‘생애사적 진행과정구조’의 재구성*

양 영 자

(경남대학교)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농촌노인부부들의 삶에 나타난 ‘생애사적 진행과정구조’를 ‘젠더관계’에 주목하여 재구성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6쌍의 노인부부들과 개별적으로 생애사적-이야기식 인터뷰를 하였고, 인터뷰자료는 Schütze의 생애사적-이야기식 인터뷰 분석방법에 Dausien의 여성주의적 생애사 분석방법을 절충·응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본 ‘생애사주체들’의 삶에는 ‘진행곡선’을 이루는 ‘생애사적 진행과정구조’가 나타났다. 그런데 이러한 ‘진행곡선’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차원의 ‘젠더관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진행곡선’의 미시적 및 거시적 차원에서 ‘젠더관계’가 나타났는데, 남성노인들의 ‘진행곡선’에서는 개인적 및 가족적인 맥락만이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맥락도 나타난 반면, 여성노인들의 ‘진행곡선’에서는 주로 개인적 및 가족적인 맥락이 나타난 젠더차이를 보였다. 둘째, ‘진행곡선’의 미시적 차원에서 ‘젠더관계’가 나타났는데, 남성노인들은 생애단계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으나 바깥일을 위주로 하는 단일한 역할을 담당하며 ‘집안일’을 수행하는 데에 소극적인 반면, 여성노인들은 전 생애에 걸쳐 ‘집안일’과 ‘바깥일’의 ‘이중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담당한 젠더차이를 보였다. 이를 통해서 ‘doing gender’가 생애사에 나타나며, 나아가 이러한 ‘doing gender’는 생애단계와 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포착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하여 생애사와 ‘젠더관계’에 주목한 실천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주제어: 생애사 연구, 생애사적 진행과정구조, 질적 연구, 젠더관계, doing gender, 농촌노인

* 본 논문은 2006학년도 경남대학교 신진교수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본 연구결과는 2007년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에서 요약·발표되었음.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일정한 연령층이나 특정 사회집단의 삶을 '이해(verstehen)'하기 위해서는 그 집단이 당면해 있는 현재의 생활경험을 이전 생애단계의 생활경험과 관련시켜 맥락적으로 분석(Schütze, 1983; 한경혜, 2004; 안진, 2005; 양영자, 2007)해야 한다. 이러한 분석은 삶의 진행과정, 즉 삶의 변화과정을 재구성하는 생애사 연구(Mayring, 2002)를 통해 행해지고 있다.

사회과학적 생애사 연구에서의 '생애사(Biography)'는 개인적 및 심리적 카테고리로서 사용되는 일상생활에서의 '생애사' 개념과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Dausien, 1996; Völter, Dausien, Lutz and Rosenthal, 2005). '생애사'는 개인의 체험이 사회적 맥락에서 개인적으로 구조화된 '사회적 구성체'로서 사회적 규칙, 쟁점 및 사회적 여건을 함축하고 있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현실이 내포하는 개인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은 생애사 연구를 통해서 분석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Marotzki, 2006). 이러한 생애사 연구에 내재되어 있는 '개인의 행위와 사회적 관계의 변증법적 분석'(Amann, 1983)은 각 부문학문이 취하는 이론과 방법론에 따라 달라지는데, 언어학과 해석학을 바탕으로 한 텍스트분석(역사학적인 재구성과 심리학적, 교육학적 및 사회학적 맥락적 분석 등)으로부터 민속지학적 관찰방법과 담론분석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Völter 외, 2005). 즉 이는 생애사 연구가 다양한 학문분야를 통해 그리고 학제적으로 행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예컨대 독일에서는 생애사 연구가 역사학, 인류학, 사회학, 범죄학, 발달심리학, 사회심리학, 심리병리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여성학, 노년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그리고 학제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Mayring, 2002).

반면 한국에서의 생애사 연구는 역사학과 인류학, 여성학, 사회학 등 특정 학문분야에 집중되어 있고(한경혜, 2004: 103), 학제적 연구 또한 이러한 특정 학문분야 내에 치중되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노년학 및 노인복지학 분야에서는 생애사 연구가 극히 미흡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한경혜, 2004)이다. 이처럼 노년학 및 노인복지학 분야의 생애사 연구가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생애사 연구를 포함한 질적 연구가 사회복지학 전반에서 아직 '태동기'(김인숙, 2007)에 있는 점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하겠다. 그런데 이러한 극소수에 불과한 생애사 연구도 주로 특정 노인집단, 예컨대 도시지역의 여성노인집단에 집중되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노인은 하나의 특성을 지니는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라 계층과 성, 지역 등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지니는 이질적인 집단(Clemens and Naegele, 2004)이다. 따라서 노인에 대한 생애사 연구 또한 이러한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이에 본 생애사 연구는 농촌노인에게 초점을 맞추어 도시노인에 집중된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다. 그중에서도 노인부부를 '연구주체(Forschungssubjekt)'¹⁾로 하여 '젠더관계(Geschlechterverhältnis)'(Dausien,

1)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의 '대상자'를 객체화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의 '주체'로서 능동적인 의미를 부여한다(Schütze, 1983: 285; Lamnek, 1993: 74). 따라서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라는 용어보다는 '연구주체'라는 용어를 의식적으로 사용한다.

1996)에 주목함으로써 학제적 생애사 연구에 기여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는 농촌노인부부의 삶에 나타난 '생애사적 진행과정구조(Prozessstrukturen des Lebensablaufs)'(Schütze, 1983; 1984; 1987; 2006)를 '젠더관계'에 주목하여 재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럼으로써 생애사 및 '젠더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도시지역의 여성노인을 '연구주체'로 한 대표적인 생애사 연구로는 강유진·한경혜(2002), 박기남(2004), 안진(2005), 이효선(2006) 그리고 양영자(2007)²⁾ 등의 논문을 들 수 있다. 먼저 강유진·한경혜(2002)의 연구를 분석하면, 그들의 연구는 노인에 대한 양적 연구에 기초한 정책적 제언들이 주로 '쇠퇴'와 '의존' 등 부정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생애사 연구를 통해 노인들이 자신들의 삶에 부여하는 가치를 이끌어냄으로써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그들은 여성노인들의 삶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여성노인들이 과거와 현재에 이르는 생애과정 동안 '나'와 '나'를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며 능동적으로 적응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그들은 사회경제적 상황, 가족 상황, 건강 등 객관적인 환경이 노인들의 생활을 지배하는 절대적 기준점이 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박기남(2004)의 연구도 독거여성노인에 대한 양적 연구의 결과가 부정 일반도로 흐르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독거여성노인들이 강인한 생활력을 발휘하며 심리적으로도 노년기 독거생활에 대해 준비를 하며 생활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의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로써 독거여성노인의 신체적 및 정서적인 건강상태는 전반적으로 나빠지며 사회적 지지망도 상대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등 삶의 질이 낮다는 양적 연구들의 부정적인 결과를 보완하였다.

그리고 안진(2005)의 연구는 노인의 삶에 대한 대부분의 양적 연구가 노년기를 전체 생애와는 독립된 생애단계인 것처럼 분리해서 분석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그³⁾는 빈곤여성노인들의 자아정체감이 노년기에도 그 이전의 생애단계에서처럼 어머니상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어머니상은 자녀들과의 상호작용이나 연대의 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따라서 그는 노년기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과거의 삶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과 현재의 평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생애사적 맥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효선(2006)은 여성노인들의 삶에 대한 연구에서 여성노인들이 주변인물이나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자신에 관한 이야기는 제한적으로만 하는 특징을 보인다고 하였다. 즉 그에 의하면 여성노

2) 후기 이농여성노인에 대한 양영자의 연구는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오랜 농촌경험을 한 여성노인을 '연구주체'로 한 점에서는 다른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보인다. 그러나 이농여성노인의 현 거주지 역시 도시지역인 점에서는 지역적 차별성을 완벽하게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3) 본 연구에서는 남성과 여성을 막론하고 중립적인 인정대명사 '그'를 사용한다.

인들은 '자아가 없는 삶', '의무는 있으나 권리가 없는 삶'을 살아옴으로써 물질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끓주리는 삶'을 살아왔는데 노년기에도 여전히 '끓주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손자녀 교육을 위해 이농한 후기 여성노인의 삶에 대해 분석한 양영자(2007)의 연구는 해당 여성노인들을 '다중적으로 배제된 사회적 범주'로서 유형화하는 부정적인 외부자적 관점을 여성노인들 자신의 내부자적 관점에 의해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연구결과, 노년기 이전의 불균등한 세대간 및 세대내 교환관계에 의한 타율적인 삶이 노년기의 이농을 기점으로 하여 세대간 상호호혜적인 교환관계에 의한 자율적인 삶으로 변화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즉 이농여성노인들의 삶은 타율적인 삶으로부터 자율적인 삶으로 발달해왔다는 것이다. 때문에 그는 타율적인 삶을 자율적인 삶으로 전환시키며 살아온 전 생애에 걸쳐 나타난 그들의 능동적인 삶의 태도를 강조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거의 모든 연구⁴⁾가 여성노인들의 삶을 노년기에 제한시키지 않고 전체 생애단계와 관련시켜 분석함으로써 그들의 삶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부정적인 노년'으로 범주화된 여성노인집단으로부터 긍정적인 측면을 이끌어냄으로써, 그들에 대한 부정 일변도의 시각을 긍정적으로 전환시킨 것도 큰 의의라고 할 수 있겠다⁵⁾. 그러나 도시여성노인에 집중된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노인집단의 이질성을 보여주는 데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⁶⁾. 아울러 여성노인의 '특수성'을 보여주고는 있으나 그러한 '특수성'을 '젠더관계'에 주목하여 심도 있게 분석하지는 못한 것도 선행연구가 갖는 제한점이라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집단의 이질성과 '젠더관계'에 주목한 생애사 연구를 하고자 한다.

3. 이론적 배경 및 연구방법

1) 이론적 배경

본 생애사 연구의 이론적 토대는 Schütze(1983; 1984; 2006)의 '생애사 연구'와 Dausien(1996)의 '여성주의적 생애사 연구'이다.

(1) Schütze의 '생애사 연구'

Schütze(1983: 283-293)는 모든 사람의 이력에 '생애사적 진행과정구조(Prozessstrukturen des Lebensablaufs)'(Schütze, 1983; 1984; 1987; 2006)의 기본적인 형식이 있는데 생애사 연구를 통해 분석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구조는 '생애사주체'가 생활 사건들의 진행에 대해 어떠한 태

4) 노년기 독거생활에 시점을 맞추어 분석한 박기남의 연구는 이에 대한 예외가 된다.

5) 여성노인들이 전 생애를 통해 물질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끓주리는 삶을 살아왔다는 부정적인 연구 결과를 제시한 이효선(2006)의 연구는 이에 대한 예외가 된다.

6) 중도장애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온 남성노인에 대한 이효선(2007)의 연구는 이에 대한 예외가 되겠다.

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다음과 같은 4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Schütze, 1984: 92; 1987: 50; 2006).

첫째, '생애사적 행위모형(Biographische Handlungsschemata)'은 '생애사주체'가 세운 계획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때, 혹은 '행위자(Handelnder)'로서의 '행함'의 행위가 두드러질 때 나타나는 '생애사적 진행과정구조'라고 하였다.

둘째, '생활사의 제도적 진행유형(Institutionelle Ablaufmuster der Lebensgeschichte)'은 '생애사주체'와 그의 파트너가 사회적 혹은 조직적 기대시간표(Erwartungsfahrplan)에 따라 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될 때 나타나는 '생애사적 진행과정구조'라고 하였다.

셋째, '진행곡선(Verlaufskurven)'⁷⁾은 '생애사주체'가 강력한 생활 사건들에 의해 압도당할 때 나타나는 '생애사적 진행과정구조'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진행곡선'은 행위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상실함으로써 '당함'의 행위, 즉 '고통의 경험'이 두드러진 '고통받는 자(Erleidender)'의 생애사에서 나타난다고 하였다.

넷째, '변천과정(Wandlungsprozesse)'은 '생애사주체'의 내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생활사적 사건들의 진행이 급작스럽게 전개될 때 나타나는 '생애사적 진행과정구조'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변천과정'은 '생애사주체'의 동질성이 변화되어 새로운 행위가능성이 열리게 된 생애사에서 나타난다고 하였다.

(2) Dausien의 '여성주의적 생애사 연구'

Dausien(1996)은 Glaser and Strauss(1967; 1979)의 근거이론과 Schütze(1983; 1984)의 생애사 연구를 응용하여 '여성주의적 생애사 연구'라는 독자적인 연구방법을 개발함으로써, '젠더관계'가 생애사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즉 젠더의 차이와 공통점은 무엇인지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4개의 여성 생애사를 그들 각각의 남편의 생애사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3개의 이론적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생애사적 경험과 기대는 각자의 방식으로 젠더를 통해 코드화된다는 '생애사의 젠더와의 결합'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그는 생애사가 젠더에 따라 발전된다는 기존의 여성주의적 시각은 개인주의적 시각을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둘째, 여성의 생애사에는 '직장과 가정의 이중적 사회화'(Becker-Schmidt, 1987)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이중적 사회화'가 여성의 생활사에 내재되어 있는 구조적 모순, 즉 '생활사의 모순성'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생활사는 미시적인 차원의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차원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되는데, 이러한 생활사에 내재되어 있는 '사회성'은 '구성과정(Konstruktionsprozess)'의 개

7) '진행곡선'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Schütze(2006)의 "해석학적 사회학의 연구대상으로서의 고통의 진행곡선(Verlaufskurven des Erleidens als Forschungsgegenstand der interpretativen Soziologie)"이라는 논문을 참고하라.

8) '생활사의 모순성'은 여성의 생애사에서 나타나는 여성특유의 삶의 진행과정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개념이다. 남성의 '정상적 생애사(Normalbiographie)'가 '직장'을 위주로 일직선(Gradlinigkeit)을 이루는 삶으로 나타나는 반면, 여성의 생애사는 '직장과 가정의 이중적 사회화'를 통해 '단절(Brüche)'과 '비연속성(Diskontinuitäten)'을 이루는 삶으로 나타나는 젠더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Becker-Schmidt, 1987; Dausien, 1994; 1996).

인적인 특성보다는 젠더차이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활사의 모순성과 사회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함으로써 그는 생애사 연구에서 나타나는 개인화의 경향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셋째, '사회적 구성체'로서의 젠더는 또한 '생애사적 구성체'이기도 하다는 'doing gender'(West and Zimmermann, 1987)의 생애사적 구조'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즉 젠더는 복잡하고 적극적인 생활과정에서 생애사적으로 '구성'되었고 또 항상 새롭게 '구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Dausien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젠더는 'doing gender'의 과정으로서 생애사적으로 '구성'된다는 것이 그 핵심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상술한 Schütze의 '생애사 연구'를 근거로 하여 농촌노인부부의 삶에서는 어떠한 유형의 '생애사적 진행과정구조'가 나타나는지 재구성할 것이다. 그리고 Dausien의 '여성주의적 생애사 연구'를 근거로 하여 이러한 '생애사적 진행과정구조'에 어떠한 '젠더관계'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⁹⁾

본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은 Schütze(1983)의 생애사적-이야기식 인터뷰(*autobiographisch-narratives Interview*)를 통해 그리고 인터뷰자료는 그의 생애사적-이야기식 인터뷰 분석방법에 Dausien(1996)의 여성주의적 생애사 분석방법을 절충·응용하여 분석하였다.

(1) 자료수집

자료수집을 위한 생애사적-이야기식 인터뷰는 Schütze가 제안한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3단계의 과정을 거쳐 실시하였다. 첫째, 생애사적 이야기에 대한 요청의 단계에서는 연구의 목적, 생애사적-이야기식 인터뷰의 원칙 및 기능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신뢰관계가 형성되도록 하였다. 둘째, 생애사적 이야기에 대한 단계에서는 인터뷰파트너의 경험과 행위에 대해 의미부여를 하고 해석한 바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도록 하였다. 셋째, 후질문 단계에서는 앞 단계에서 충분히 이야기되지 않은 테마나 잠시 언급만 하였으나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 테마 혹은 합리화된 것으로 판단된 문제 등에 대해 추가적인 질문을 하여 이야기하도록 하였다.

위의 3단계에 따라 행한 생애사적-이야기식 인터뷰는 2006년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전북 순창군 A¹⁰⁾면의 B, C, D마을에서 총 6쌍의 노인부부와 개별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총 12개의 개별인터뷰는 해당 노인의 자택에서 하였는데, 짧게는 45분부터 길게는 2시간까지 소요되었다.

(2) 자료분석

인터뷰자료는 Schütze의 생애사적-이야기식 인터뷰 분석방법에 Dausien의 여성주의적 생애사 분석방법을 절충·응용하여 다음과 같은 5단계의 과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첫째, '녹취단계'에서는 이야기

9)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등 생애사연구의 방법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한경혜(2004), 이효선(2006), 양영자(2007)의 논문을 참고하라.

10) 지명이나 마을명, 학교명, 인명 등은 익명성의 보장을 위해 필요에 따라 부호화한다.

내용뿐만 아니라 중단된 부분, 웃음, 표정 등도 함께 필사하였다. 둘째, '형식적 텍스트분석 단계'에서는 이야기식이 아닌 텍스트 부분을 찾아 삭제한 뒤 문단나누기를 하였다. 셋째, '구조적 내용적 서술 단계'에서는 시간적으로 진행되는 '생활흐름의 과정구조'를 서술하였다. 넷째 '분석적 추론 및 지식분석 단계'에서는 먼저 각 삶의 단계에서 추론한 구조진술을 체계적으로 관련시켜 전체적인 생애사의 틀을 추출하는 '분석적 추론'을 하였다. 다음으로 '생애사주체'가 자신의 생애사나 동질성에 대해 느끼거나 생각한 바를 추출하는 '지식분석'을 하였다. 마지막 다섯째, '비교분석의 단계'에서는 개별 인터뷰 텍스트들을 대조시켜 '생애사적 진행과정구조'의 유형과 그 유형 속에 나타난 '젠더관계'의 변화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때의 비교분석은 '극소비교의 원칙'과 '극대비교의 원칙'에 따라 하였다.

4. 연구결과

1) '생애사주체'의 일반적 특성

〈표 1〉 '생애사주체'의 일반적 특성

부부 사례	개별사례	성별	출생연도	인터뷰 시 연령	결혼연령	결혼상태	자녀수	군입대연령	거주지	노년기 이전의 직업	교육정도	인터뷰 시행시점	인터뷰 이후의 외적 변화
A부부	A할아버지	남	1933	73	19	초혼	3남 3녀	1953 20	B 마을	농업	무학	2006. 12	2007. 02, 사망(질병)
	A할머니	여	1936	70	16				B 마을	농업 (행상)	무학	2006. 12	
B부부	B할아버지	남	1941	65	24	초혼	3남 2녀	면제	B 마을	농업	무학	2006. 10	
	B할머니	여	1946	60	19				B 마을	농업 (행상)	국 중퇴	2006. 10	
C부부	C할아버지	남	1935	71	18	초혼	2남 4녀	1954 19	B 마을	농업	중 중퇴	2006. 10	
	C할머니	여	1936	70	17			B 마을	농업	무학	2006. 10		
D부부	D할아버지	남	1936	70	20	초혼	4남 2녀	1957 21	B 마을	농업	국 중퇴	2006. 12	
	D할머니	여	1941	65	15			B 마을	농업	무학	2006. 12		
E부부	E할아버지	남	1934	72	22	재혼	3남 3 녀	1957 23	C 마을	농업 (상업)	중 중퇴	2006. 10	2007. 06 이후, 이 교통사고 후 입원 중
	E할머니	여	1944	62	20(초혼 연령) 52(2번째 재혼연령)	2번째 재혼	무 1남		무	C 마을	노무직	무학	2006. 10
F부부	F할아버지	남	1929	77	18	재혼	1남 1 3남 1 녀	면제	D 마을	공무원	국졸	2006. 10	
	F할머니	여	1938	68	24	초혼			D 마을	농업	무학	2006. 10	

본 '생애사주체들'은 위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60대와 70대의 노인부부로서 정년퇴직을 한 전직 공무원인 F할아버지와 두 번째 재혼을 통해 농촌에 정착한 E할머니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전 생애에 걸쳐 농업에 종사한 농민들이다.¹¹⁾ 따라서 공무원연금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F노인부부¹²⁾를 제외하고는 모두 농업활동을 통한 연소득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생애사주체들'은 초혼생활을 하고 있는데, 60대와 30대 초반에 사별한 E와 F할아버지만이 재혼생활¹³⁾을 하고 있다.

2) '생애사적 진행과정구조'의 젠더 관점에서의 재구성

본 '생애사주체들'의 삶에 나타나는 '생애사적 진행과정구조'는 개인적 및 가족적 맥락에서는 '생애사적 행위모형'을 그리고 사회구조적인 맥락에서는 '진행곡선'을 이루는데, 이러한 양 유형이 상호작용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진행곡선'을 이룬다. 그리고 이러한 '생애사적 진행과정구조'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차원의 '젠더관계'가 나타난다. 첫째, '생애사적 진행과정구조'의 미시적 및 거시적 차원에서 '젠더관계'가 나타나는데, 남성노인들의 '생애사적 진행과정구조'에서는 개인적 및 가족적인 맥락만이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맥락도 나타난 반면, 여성노인들의 '생애사적 진행과정구조'에서는 주로 개인적 및 가족적인 맥락이 나타난 젠더차이를 보인다. 둘째, '생애사적 진행과정구조'의 미시적 차원에서 '젠더관계'가 나타나는데, 남성노인들은 생애단계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으나 '바깥일'을 위주로 하는 단일한 역할을 담당하며 '집안일'을 수행하는 데에 소극적인 반면, 여성노인들은 전 생애에 걸쳐 '집안일'과 '바깥일'의 '이중적 역할(Becker-Schmidt, 1987)'을 적극적으로 담당한 젠더차이를 보인다.

이에 연구자는 이러한 '진행곡선'으로 나타나는 '생애사적 진행과정구조'를 본 '생애사주체들'이 자신들의 삶을 결혼과 노년기를 중심축으로 하여 이야기하는 것에 주목하여, 결혼 이전과 이후 그리고 노년기 등 3개의 생애단계로 나누어 '젠더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재구성하고자 한다.

(1) 결혼 이전의 생애단계

결혼 이전의 생애단계에서는 생존을 위협하는 절대빈곤과 그로 인한 교육기회의 박탈이나 제한에 대한 경험이 주요 화두가 된다. 개인적 및 가족적인 차원에서는 절대빈곤을 극복하기 위한 활동 등의 주로 '행하는' 행위가 두드러진 '생애사적 행위모형'이 나타나지만 사회구조적인 차원에서는 빈곤의 대물림과 빈곤 및 질병체도로 인한 교육기회의 박탈이나 제한 등의 주로 '당하는' 행위가 우세한 '진행곡선'이 나타난다. 그러나 양 유형이 상호작용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고통의 경험'이 우세한 '진행곡선'이 나타난다.

- 11) 초혼 초기 홀로 상경하여 다년간 도시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서야 농촌에 정착한 E할아버지도 지속적인 농촌생활만을 한 그들의 생활과는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 12) F할아버지는 국민학교를 졸업한 직후 면사무소의 '심부름꾼'인 '소사'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것이 40년의 '공직생활'로 이어졌다고 하였다.
- 13) E할머니는 사별과 이혼의 경험으로 두 번째 재혼을 하였으나 F할머니는 다른 '생애사주체들'과 동일하게 초혼생활을 하고 있다.

그럼 이와 관련한 그들의 이야기를 '젠더관계'에 주목하여 분석해 보자.

① 절대적 빈곤과 빈곤극복을 위한 활동

본 '생애사주체들'에게 있어서 유년기를 포함한 결혼이전의 생애단계는 굶주림이 일상화된 절대적 빈곤의 시기이다. 그런데 남녀노인 모두 이러한 빈곤을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남성노인들은 예컨대 빈곤이 대물림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아버지께서도 별로 살림이 없어서, 배우도 못하고, 그리서 인자 한, 어렸을 때는 교육(머슴살이)도 히보고 (...) 아홉 살 넘어서는 우리 집도 가난헌게로, 묵을 것이 뭐 그 논 두마지기 갖고 뭇 허겼어? (...) 그냥 장개 가드락까지 내가 스무살 때 결혼을 했넌디.”(A할아버지) “또 농촌에서 어려웁게 태어, 부모 때부터 태어나가지고, 부모가 없이 산게, 나도 뭇이나 그 곤란헌게 지내고, (...) 그리서 인자 나는 마을이서 뭇이나 쌀 한가마니 받고 교육(머슴살이)을 허기로 인자 들어갔었고.”(D할아버지)

그리고 여성노인들 중 한 노인은 가족의 가난을 아버지의 징용과 관련시켜 서술하고 있다.

“아버지가 8월 달에 (일본)모집을 가셨당마. (...) 그래가지고 4년, 나 여덟 살에, 그 해방되신 아버지가 나오셨어. (...) 궁게 아버지가 그렇게 4년 동안을 일본 가셔서 못 나오신게 어무니가 혼자 살기가 힘든게. (...) 외갓집으로 와갔고, 외갓집이서 살다가 인자, 아버지가 해방되서 나오셨어.”(C할머니)

이처럼 남녀노인 모두 빈곤의 원인을 사회구조적인 차원에서 찾은 것과는 달리, 빈곤에 대한 대처는 단지 가족적인 차원에서만 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를 '젠더관계'에 주목하여 분석하면, 남성노인들은 부모님의 농사일 거들기, 머슴살이, 품팔이 등 주로 '바깥일'을 통해 대처한 반면, 여성노인들은 부모님의 농사일 거들기와 가사 일 등 '바깥일'과 '집안일'을 병행시켜 대처한 젠더차이를 보인다.

“서숙도 가꾸고 고구마도 심고, 그 밭에다가 참깨 같은 것을 심으며는 밭 처리를 못 헌게로, 나보고 (부모님이) 막 가지마래, 학교를. (...) 그양 다 이어 나르고, 업어 나르고 그양, 어무니 아버지 못허는 일을 내가 따라 다님서 내가 다 허고.”(B할머니) “여동생이 내 밑으로 둘 있었는데,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땡길 때네, 그 때 얘기를 보라고 히서, 얘기를 보니라고 1년을 그 후진 국민학교를 안 갔었어.”(C할아버지)

그런데 전형적인 '바깥일'로서 남성들만이 행한 머슴살이와 전형적인 '집안일'로서 여성들만이 행한 가사일과는 달리, 위의 인터뷰텍스트에서는 농사일을 거드는 '바깥일'이 여성들에 의해서도 그리고 동생을 돌보는 '집안일'이 남성들에 의해서도 행해진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이를 통해 아동기 및 청소년기에는 머슴살이나 가사일과 같은 정형화된 젠더 역할만이 아니라 '바깥일'과 '집안일'의 '이중적 역할'도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 남녀 모두에 의해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즉 젠더의 '구성' 및 '탈구성'이 남녀 모두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② 빈곤이나 질병제도로 박탈되거나 제한된 교육기회

박탈되거나 제한된 교육기회에 대한 남녀노인들의 인식에는 젠더차이가 보다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런데 남성노인들은 낮은 교육수준의 원인을 가족 내적인 차원과 사회구조적인 차원에서 찾는 반면, 여성노인들은 주로 가족 내적인 차원에서 찾는 젠더차이를 보인다. 먼저 남성노인들이 꼽은 가족 내적인 원인을 분석하면, 빈곤하고 무지한 부모로 인해 교육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했거나 혹은 극히 제한적인 기회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꼽은 사회구조적인 원인을 분석하면, 전쟁을 전후로 한 징병제도가 교육에 이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즉 군 입대를 연기하기 위해 상급학교에 진학하도록 하는 긍정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거듭되는 군 입대 연기에 필요한 ‘뇌물’을 마련하는 데에 재정적 한계에 부딪친 가정형편 때문에 결국 학교를 중퇴하도록 하는 부정적인 영향도 미친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우리 아버지도 낫 놓고 기억자도 몰라요 사실상. (...) 이지까지 농사만 짓고 이렇고 본게. 자식들 가르칠 생각도 안하고 있네. (...) 나도 때 써서는 학교, 보통학교 졸업하고는.”(F할아버지) “내가 그 때 초대 대통령 이승만 거 선거를 할 무렵에, 그 때가 내가 열아홉 살이었어. 근데 열아홉 살에 신체 검사를 했어. (...) 그 봄에 했는디 가을에 영장이 나와본드라고, 그 때는 여간 안 갈라고 했어, 군인일. (...) 그서 중학교를 갔어. 돈을 거 주고, (...) 왜 그나마는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가며는 보류가 되야. (...) 돈을 쓰고 중학교를 가갔고 인자 영장을 그리도 세 번을 받았나? (...) E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가만히 생각해보게 또 영장을 받았는디 가야졌어. 그라능머 자꼬 돈만 없어져. (...) 그서 정월 초사흘 날 가끄마.”(C할아버지)

반면 여성노인들은 교육과 관련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는데, 이는 그들의 교육경험이 거의 부재¹⁴⁾한 데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를 거 분교를 나를, 그 10살인가 11살인가 갔을거여, 1학년, 늦게. (...) 내가 그러서 4학년 되 드락 때까지 땡기다 5학년 됴서부터 내가 중퇴를 히부렸어. (...) 친정에서 일, 어무니 아버지가 노인이 라 일 조개 도와주라고, 다 가꾸시달 못 헛게. (...) 밭 처리를 못 헛게로, 나보고 막 가지마래, 학교를.”(B할머니)

이를 통해 여성노인들은 빈곤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성에 의해서도 이중적으로 교육차별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결혼 이전의 생애단계에서는 생존을 위협하는 절대빈곤과 그로 인한 교육기회의 박탈이나 제한에 대한 경험이 주요 화두로서, 개인적 및 가족적인 차원에서는 ‘행하는’ 행위에 의해 ‘생애사적 행위모형’이 그리고 사회구조적인 차원에서는 ‘당하는’ 행위에 의해 ‘진행곡선’이 나타나는데, 양 유형이 상호작용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고통의 경험’이 우세한 ‘진행곡선’이 나타남을 분석하였다. 그런데 이 단계에 대한 논의가 이후의 다른 생애단계와 비교해볼 때 매우 제한적인 데에 그치고 있는 것은 전체 삶에서 주변화¹⁵⁾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젠더관계’에 주목하여 분석한 결

14) 국민학교를 중퇴한 B할머니를 제외한 여성노인들 모두 교육을 받은 경험이 전혀 없다.

과, 남녀 모두 정형화된 젠더 역할만이 아니라 '바깥일'과 '집안일'의 '이중적 역할'도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 감당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젠더의 '구성'과 '탈구성'이 남녀 모두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포착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그들의 결혼 이후의 생애단계에서는 어떠한 '생애사적 진행과정구조'가 나타나고, 이러한 구조에는 어떠한 '젠더관계'가 나타나고 있을까?

(2) 결혼 이후 노년기 이전의 생애단계

결혼(세대) 이후 노년기 이전의 생애단계에서는 가족부양과 자녀교육의 주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어려움이 주요 화두로서, 가족적 차원에서는 가족부양과 자녀교육을 위한 다양한 행위에 의해 '생애사적 행위모형'이 그리고 사회구조적 차원에서는 대물림된 빈곤, 도·농간 불평등한 교육제도, 6·25전쟁과 부정적인 새마을운동의 경험 등 '당하는' 행위에 의해 '진행곡선'이 형성되는데, 양 유형이 상호작용함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주로 '고통의 경험'이 두드러진 '진행곡선'이 나타난다.

그럼 이와 관련한 그들의 논의를 '젠더관계'에 주목하여 분석해 보자.

① 도시생활에 대한 차선책으로서의 농촌생활

남성노인들은 농촌생활을 도시생활에 대한 차선책으로 시작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청소년기 가출을 통해 도시생활을 시도했으나 이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지 못하여 다시 귀향하여 농촌생활을 한 것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

“6.25 터지고 인자, 자유당 때제, 6.25 끝나고, 한, 20살 묵었어. 인자 까딱 까딱 여그가 인자 개발을 허고 인자, 살림살이가, 정권이 좀 안정이, 국가가. 국가가 안정이. 인자 우리가 여그서 일 허기가 싫어 니까, 서울로 우리 또래들이, 댕놈들이 짜고 가. (...) 인자 또 돈이 떨어져, 한나 없어. 그러머는 인자, 어쩔 것이어. 식당마동 어디 댕김선 뉘 취직조개 시켜들라고 응? (...) 밥 그럭도 갖다 날르고 어찌고, 고런 것도 허고 그렸어. 허기가 싫어, 밋 일 허든 또, 그면 또 집이가 오고잡제 이. (...) 그리갔고는 나와.”(B할아버지)

이처럼 도시에서의 정착을 위해 소극적인 시도만을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다년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적극적인 노력을 했으나 결국 실패하여 귀향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만 4년을 군대생활을 허고 나왔었제. 그리갔고도 집에 와서 별로 헐 일이 없어. 고생스럽게만 허제. 그서 도로 그냥... 아버지가 소 길러 논 놈, 큰 놈 한 마리 팔아갔고 서울로 또 올라가뉘어. (...) 그 때는 인자 결혼도 허고 그랬제. (...) 참 서울가서 여그서 논 두마지인가 팔아갔고 가서는 식당을 허다가. (...) 그 때 중화요리를, F식당이라고 허서 중화요리를 한식허고 했어. 중암동, 좋은 디서 했어. 근디 자알 되더라고. 아, 그 때만 히도 금방 돈 벌 것 같혀. 근데 또 사기를 당했잖어.”(E할아버지)

또한 독자의 신분 때문에 이농계획을 취소하고 농촌에 정착해야만 했던 경우도 있음을 찾아볼 수

15) 여성노인의 생애사에 나타난 '유년시절의 주변화' 논의는 양영자(2007)에 의해 행해진바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여성노인뿐만 아니라 남성노인의 생애사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남을 '젠더관계'에 주목하여 분석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있다.

“지그(군대 친구) 집은 태화고무, 고무공장을 혀. 궁게 ‘고무공장에 가서 일을 허쇼, 집이로 가지 말고.’ 아 그리서 제대를 허고 그러기로 약속을 허고 집에를 왔는다. 집에 오니까 아버지가 내종이 들었어. 지금 같으면 북막염인가봐. (...) 궁게 그러도 저러도 못허고, 가도 못허고, 누가 뭐 집 돌봐 줄 사람이 있어야제. 그리서 못 가고.”(C할아버지)

그런데 좌절된 도시생활에 대한 경험은 자유당 정권시절과 군 생활 후의 시점 등과 같은 사회적인 맥락에서 이야기되고 있다. 이는 개인의 삶이 사회구조적인 상황과의 밀접한 상호작용 속에서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반면 여성노인들은 농촌을 벗어난 도시에서의 생활에 대해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¹⁶⁾ 이는 그들이 도시생활에 대한 경험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이처럼 남성노인들에게는 차선택이 그리고 여성노인들에게는 유일한 생활방식이 된 것으로 나타나는 농촌생활은 그들에 의해 어떻게 그려지고 있을까?

② 군 생활로 인한 결혼생활의 제약과 빈곤상황의 악화

군 생활을 경험한 4명의 남성노인들은 모두 군 입대 전후에 결혼하는데, 생사여부가 불투명한 전쟁 직후의 군 복무 때문에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다년간 유보해야만 했던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유보된 결혼생활은 ‘공방 들린’ 신혼생활에 대한 남녀노인들의 이야기가 보여주듯, 자신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부모의 뜻에 따라 행한 조혼으로 겪는 결혼생활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킨 것으로 보인다.

“(웃음)궁게 휴가를 1년에 한 번씩, 두 번씩 보내거든. (...) 궁게 집이서, 저 군대에서, 가불고 없을 거이다. 그려. 일년에 한번때끼 못 본게. 그러면 안가고 있드라고. (...) 애초에부터 내가 장가갈 때 안 간다고 했거든. (...) 군인가면 죽어분게 뭐드게 에이? (...) 총각은 민해안다. 민허라고 하도 그리서 그냥. 장개가 뭐인지도 모리고 그냥 갔제.”(A할아버지) “부모가 맺어준 거지긴게 그냥 법으로 살았제. 아조. 밥묵은 수제도 뵈기 싫었고, 신발도 벗어놔도 뵈기 싫었고. 그리고 했는디. 내가 ‘여자가 그러면 뵈허냐?’ (...) 마지막 제대 와갔고 쪼께 나사져서 그대로, 그대로 살었어.”(A할머니) “옛날 구식 결혼을 허며는 부자집에서는 1년을 묵혀. 근데 인자 거그서 묵히니까 군대에서 휴가 와갔고 결혼을 허서 바로 또 군으로 가불고. (...) 어트케 인자 또 공방이 들었어. 아, 근디 휴가를 오며는 (부인이) 어떻게 이상허게 안볼라고를 혀.”(E할아버지)

결혼하자마자 곧 바로 남편을 군에 보내야 했던 여성노인들의 이야기에서는 생존을 위해 갖가지 어려운 일을 헤쳐 나가야했던 며느리로서의 ‘고통’이 나타난다.

“내가 열일곱 살 묵어서 시집왔제. 내가 그때는 시집온게 여그 승년이 들어갔고 임진년이등마. 그 서 쑥죽 묵고 생키 빗겨서 묵고. 겁나게 힘들게 살았제. 아조. 나 시집 온 그 이듬해 남편은 또 군대

16) 두 번째 재혼을 통해 노년기에서야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한 E할머니의 사례는 예외이다.

가고.”(A할머니) “남편은 군인 가불고, 시아버지는 그렇게 아프시고 헌게로 대체나 그때 당시도 그냥 산다는게 어려웠어.”(C할머니)

이처럼 여성노인들이 생계현장에서 빈곤과 싸우는 생활을 하는 동안 남성노인들은 전쟁과 굶주림으로 인한 이중적인 생존의 위협을 겪어야했던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저 7월 27일 날 휴전되었다고 뭐이나 갑판이다 써 붙여서, 우리는 인자 집이 간다고 했는디. (...) 아, 그러도 보내던 안 허드라고 (...) 그러갔고 내가 전방 7사단으로 가갔고도 본게, 요런, 올려 군인을, 배치를, 많이 죽여부렀은게 인자 쪼무래기씩을 올린개비여.”(A할아버지) “그 쪽에는 군대생활이 어찌 엄하고 밥이라고 참 뭐 기구혀, 참말로, (...) 갈적에는 돈을 거시기허게 갖고 갔죠, 많이. 하안참 배가 고프고 거시기헌게.”(D할아버지)

그런데 이러한 군 생활은 당사자인 남성노인들에게만이 아니라 가족에게도 생존의 위협이 된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굶주림에 시달리는 군 생활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족에게 재정적 지원을 요구한 것이 가족의 빈곤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는 것이다.

“우선 빛이고 뭐고(웃음) 내가 살아야 거시기허제, 빛이 무섭들 안습디다. 그서 돈을 부치라고 히 갖고 돈도 참 저 형편이 곤란허도 갖다 쓰고, 그래가지고 막상 대체 나와서 본게, 집이 와서 본게 기구허제, 참말로, (...) 나와서 본게 인자 빛이 무서,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웃음).”(D할아버지)

이상으로 본 '생애사주체들'의 결혼생활은 군 생활로 인해 큰 제약을 받았으며 가족의 빈곤상황 또 한 더욱 악화되었음을 분석하였다. 이는 군 생활이 군복무를 담당할 남성노인들에게만이 아니라 가족 전체에게도 '고통'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럼 그들의 세대(결혼)¹⁷⁾ 이후의 삶은 어떻게 그려지고 있을까?

③ 가족부양과 자녀교육을 위한 농·축산 및 부업활동

세대 이후의 삶에서는 가족부양과 자녀교육 등을 위한 '가족부양자(Familienernährer)'로서의 역할과 관련한 여러 활동들이 주요 화두가 된다. 남녀노인들 모두 이러한 역할을 품팔이, 소작, 자작, 축산, 다양한 부업 등의 활동을 통해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농·축산활동과 다양한 부업 등의 '바깥일'이 남녀노인들 모두에 의해 공유되고 있다는 점이다. 남성노인들에 의해서는 주로 품팔이, 논일, 축산 등의 '바깥일'이 행해지고 있다.

“내가 (제대한) 그때 당시는 집이 가난헌게로, '5분 이상을 쉬지 안허고 일을 한다' 그랬어, 뭇이고, 그러서 인자 그때 당시(기침) 뭇이고 념의 일이고 뭐이고 허고 그러서 논 밭 마지기씩 올리고, 그러서 시방까지 이렇게 살아왔어.”(A할아버지) “그러갔고 그 논 갈아주면 뭐이나 그 돈 받고 논 갈아주기로, 궁게 논도 많이 맡아서 내가 갈고, 집이서 소를 밍있기 때문에, (...) 그쪽에만 히도 A(면소제지) 거가 뭇이나 품팔이가 (...) 그 념 손대서 일헐 사람들이 많았어요.”(D할아버지)

17) 군 면제를 받은 B와 F할아버지의 경우에는 결혼 이후의 삶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성노인들에 의해서는 주로 밭일, 축산, 잠업, 부업, 품팔이 등의 ‘바깥일’이 행해지고 있다.

“봄에는 밭에 가서, 봄 내 보리밭 매고, 산다는게(허탈하다는 듯 웃으며) 그렇게 살았제 뭐, 찻(혀를 차며) 그렇게 살다가 인자 소를, (...) 조합에서 돈을 얻어다가 송아치를 하나 사. 그뻬 송아치를 하나 사면 고놈 키워서 팔아가지고 시누 하나 여우고, 또 그렇게 조합서, 조합 돈 얻어가지고 소 사서 또 키워갔고 시누 둘인데 또 다 여우고, (...) 옛날에는 애들, 대치나 누에 키워서 뭐냐? 애들 수업료 주고, 뭐이나? 담배하고 그런 것 헛제 뭐. (...) 그때는 양카시도 따로 땡기네 뭐, 비니루도 주스려 대니네. (...) 어디 가서 님의 집이 가서 또 일을 잠판이라도 조께 버네, 별 짓을 다 하고 대니제.”(C할머니)

그런데 위의 인터뷰텍스트를 살펴보면, 남녀노인들 모두 공유한 ‘바깥일’ 중 일정한 영역은 다시금 젠더에 따라 분리되어 행해지고 있다. 예컨대 쌀을 생산하는 논일은 주로 남성들이 그리고 밭작물을 생산하는 일은 여성들이 행하는 젠더차이가 나타난다. 그러나 부업일과 같은 ‘집안일’은 전형적인 여성의 일로서 여성들에 의해서만 행해지고 있다. 이로써 ‘바깥일’은 남성의 일이며 ‘집안일’은 여성의 일이라는 정형화된 젠더의 ‘구성’ 뿐만이 아니라 ‘바깥일’을 남녀 모두 공유하는 젠더의 ‘탈구성’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뻬 토옹 시집오자마자 (병석에 누워 지내는 시아버지께) 송농밥 히서 드리고, (...) 궁게 삼, 삼 품 돌아오면 삼 품앗이 하고, 겨울에는 초석을 짜, 시안내 명 찾아서 명배 놔갔고 설, 설 돌아오면 인자 어른들 옷 히서, (...) 그리갔고 인자, 봄 돌아오면 또 삼 삼아서 인자 또 인자 삼베 나와서 팔아서 또 보리쌀 같은 거 팔아묵고.”(C할머니)

아울러 본 ‘생애사주체들’의 다양한 활동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또 다른 점은, 소득증대를 위한 농업 이외의 축산과 같은 ‘공격적인’ 활동이 오히려 가정경제를 위축시키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남녀노인들 모두 그 원인을 소 값 하락으로 대표되는 불합리한 축산정책에서 찾는 특징을 보인다. 즉 그들은 가족적 차원의 경제적 실패가 사회적 차원의 정책적 실패와 맞물려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농사 지면서 ‘소를 한, 여덟 마리를 키워볼까’ 하고, 소를 여덟 마리를 입식을 했다가, 여기서 입식을 할 때는 보통 160-170만원을 주고 샀는데, 궁게 1983년도인가? 아조 소값이 폭락이 되볼더라고, (...) 그것도 참 축협에서 돈을 얻어다가 키우다 보니까 늘 적자가 나. 그러서 헐 수없이... 저 소를 전부... 구입헌 자금이 한 반 정도나 받고 싹 능겨부렀제, 도로.”(E할아버지)

이처럼 ‘공격적인’ 활동으로 인해 오히려 큰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경우가 있는가 하면, ‘보통’의 농업 활동만으로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는 점에 주목해 볼 때, 농업에 종사한 대부분의 본 ‘생애사주체들’은 ‘공격적인’ 활동을 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가족을 부양하고 자녀를 교육시키는 데에 큰 어려움을 경험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공계 애덜을 거시기허게 갈치덜 못했어. 내가 요렇게 못 배우고 나는 거시기허서. 큰놈이라도 뫼이나 탄놈들은, 동생들은 못갈치나마 뫼이나 큰놈이나 갈치야겠다. 그때 큰놈을 중학교 나와갔고. 고등학교 보내야겠는디 뫼이나 그 차비만 해도. 차비 그것을 못줘서 아침마동 울려 보낼 때가 많고 거시기헌디 뫼이나 저 초등학교, 으 중학교 마치고 고등학교 거시기헐란다. 또 둘째가 또 뫼이나 중학교를 들어가게 생겨, 둘째가. 그서 그때 하도 웅삭헌게로. 또 우리 G는 초등학교 졸업허고 중학교를 못 넣게 생겨서. 지가 여 H우체국에 또, 우체국을 들어갔어요. 공계 인자 거그 가서 심바람 허고. (...) 그리가지고 한해 지가 거그서 있어가지고 뫼나 중학교를 들어갔고.”(D할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교육의 의지가 강한 노인부부들¹⁸⁾의 경우, 자녀교육을 위해 농업 이외의 영역으로 활동범위를 넓혀나간다. 그런데 여기에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화장품, 바구니, 머릿기름, 미역 등¹⁹⁾의 새로운 행상활동영역이 여성들에 의해 개척되었다는 점이다.

“밭로 벌어서 거까지 산중 길을 뫼 천리를 뫼기잔게. 집집마동 문정문정. (...) 말이 안 떨리고 가서 다행이 '사쑤' 히갔고 사면 좋지마는. 나올라면 뫼꼭지 부끄럽고. '얼매나 내가 진짜로 사서 이렇게 뫼 능력이 모지래갔고, 내가 이룬데 서서, 시집을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허까' 싶으고.”(B할머니) “애기덜이 그 학비가 많이 들어요, 다섯인게. 그놈을 인자 내가 논도 없고 밭도 없고 그러니까. (...) 근디 님 자본으로, 님 시키는 대로 가서 물건, 인자 체, 요만한거 체 뫼, 열개미 고런 것 열 댓개씩 줘. (안식구가) 그놈 팔아갔고 주인을 인자 얼마 주고, 또 많이 남으면 내가 고생헌 사람이 쫘 따묵고, 고런 장사를 헐어, 장사도 공계 기구 철창허제, 기가 맥혀, 눈물 나와.”(B할아버지) “큰딸 때 내가 거시기 저, 비단장시를 히그만, 비단장시를 히갔고, 저어, 처모냥에는 순창서 떠어다 팔고 그렀는디. 인자 대구가서, 대구까장 뫼김선 떠어다 여그, 여그 I로 J, 저 많이 가면 K, L 요리 고렇게 뫼김선. 날마동 뫼뫼 돌아뫼김선 그렇게 팔고, 그리갔고 (논을) 많이 장만 헐어.”(A할머니)

그리고 빈곤정도가 가장 강하며²⁰⁾ 남편들의 교육정도가 가장 낮은 경우²¹⁾에 이러한 행상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자녀교육에 대한 그들의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시집)와서 보니 뫼 있어? 궁뫼이 하나 들었아서 포닥허게 히묵을 것이 있는가? 논 한마지기가 있

18)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야기는 B할머니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

“우리 얘기아빠나 나나 공부도 못 배워서 그것이 항시 한이 되어서. 거기서 약속을 헐어. '젊어도 우리가 벌어서 갈치야제. 우리같이 되며는 쓰겼냐고, '우리는 요리케라도, 참 결혼이라도 히지마는. 인자는, 앞으로는 못 배우면 결혼도 못헌다'고 요런 소리 히감서. (...) '우리는, 부모는 죽어도 자식들은 갈치안다' 허고.”(B할머니)

- 19) 해당 여성노인들인 A와 B할머니에 의해 인터뷰 중 일컬어진 행상활동 품목이다.
- 20) 6명의 남성노인들 중 3명(A, B, D할아버지)이 다년간의 머슴살이를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 하는데, D할머니를 제외한 A와 B할머니가 행상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 21) A와 B할아버지는 무학으로서 6명의 남성노인들 중 가장 낮은 교육수준을 보인다. 그들과 마찬가지로 A할머니도 무학이지만 B할머니는 국민학교를 4학년 때 중퇴한,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수준을 보인다.

는가? (...) 생전 히보지도 않은 것 거, 낫선 디 가서 단독으로 현 것도 보통일 아녀요, 아무나도 고 것 못혀, 못 갈쳤으면 못 갈쳤제. 그렇게 히서 나는 평생, 나는 고생을 히은 사람이여. 다 남자가 조개 야무지고 뭐이가 있으면 좀 배왔다면, 남자가 여자가 똥 꼴을 보겼어요? 나보다도 더 눈을 못 떴잖어? 국민학교도 못 나오고, 째(혀 차는 소리) 궁게 나가라는 소리도 못혀. 본인이 실력이 없고 그양 가고 자고들 안허는디 일들을 내보내겼어요? 어머이히고 살어라고 내가 뛰었어요.”(C할머니)

여성주의적 관점에서는 여성들이 ‘바깥일’을 하며 ‘주부양자’ 역할을 담당하고 남성들은 농업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가사활동을 하는 어머니를 보조하며 ‘내조자’ 역할을 한 것이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이는 일부의 남성들은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이중적 역할’을 감당했음을 의미하는데, 여성들의 경우에는 젠더의 ‘탈구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반면 남성들의 경우에는 소극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젠더차이를 보인다. 이로써 젠더의 ‘구성’ 및 ‘탈구성’의 ‘doing gender’가 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가족부양을 위한 활동 중 본 ‘생애사주체들’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자녀교육과 이를 위한 그들의 지원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자녀들은 현재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④ 자녀교육의 실패와 빈곤의 대물림

자녀교육을 위한 지원에 대해서는 남녀노인 모두 활발하게 이야기하는데, 지원의 정도는 빈곤의 수준보다는 부모의 교육의지의 정도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자녀교육을 위한 지원은 도시로 유학을 보냈느냐의 여부에 따라 적극적인 지원과 소극적인 지원으로 나뉘는데, 먼저 적극적인 지원을 한 경우부터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 분석해보자.

B와 C노인부부는 도·농간 불평등한 교육제도로 인한 불이익에 맞서 자녀들 전체 혹은 일부를 이르게는 국민학교 때부터 그리고 늦게는 고등학교 때부터 도시로 유학을 보낸다. 그러나 이는 학비 이외의 자취나 하숙 등에 필요한 생활비를 추가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경제적인 이중고를 감수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농업활동을 위한 물적 토대가 거의 없었던 B노인부부가 보다 많은 농지를 확보한 C노인부부보다 오히려 더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B할머니는 가족을 남겨두고 유학 중인 장남의 거주지로 옮겨와 각종 부업활동을 하는 적극성을 보인 것이다.

“작정을 했어요, 진짜로. ‘우리는, 부모는 죽어도 자식들은 갈쳐안다’ 하고, 가꼬 국민학교 때부터. 우리, (큰아들이) 국민학교 한 2학년 때인가? 거기서 땡겼어. (...) 나 우리 큰아들 전주 학교 보내놓고 식당도 허다 술집도 땡기보다, 장사도 호떡 장사도 해보다 붕어빵 장사도 해보다. (...) 그리 해보기도 허고 저리 해보기도 허고 나 예지간한 것은 다 히했네. 일이라고 허는 것은(값고 큰 한숨).”(B할머니)

그러나 이러한 적극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자녀교육은 실패로 끝난 것으로 평가한다. 가령 B할머니는 장남이 ‘인생의 낙오자’가 되었다고 한탄할 정도의 강한 좌절감을 표출한다. 국민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유학을 한 장남은 대졸 이후 취업에 실패하자 10년이 넘도록 소식을 끊어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²²⁾.

“그더니(졸업하고 나더니) 아무현티도 직장이 안되야부렀어. (...) 가서 인자 지 감정에(제 판에는) 일자리 알아본다고 한다. 내 헤매다가 인자 못 찾으면 다시 인자 집에 들어오고 한다. 집에 오면 또 ‘너 같은 놈을, 우리가 갈칠 논 놈을 갈쳤나? 속을 챙기서 니가 밥묵을 자리를 찾아서 들어가야제. 집이 다 이렇게 들어와 누워있는 꼴은 못 본다.’ 인자 즈그 아버지가. 그런게 인자 쫓아내분거지, 말허자든. 피로워서 나가제 인자. (...) 언젠가는 한 번 M(경기도의 한 시)에서 전화가 왔어. ‘엄마, 나 N신문 기자로 들어갔다고 그려. (...) 몇 개월, 인자 그나 1년도 못 되었는데. (...) ‘엄마, 부도가 나가지고 거가 있을 자리가 못 된다’고. ‘일해도 월급도 안 주고, 그렇게 고생을 혀도 월급도 안주는데 어뜨게 있겠냐고 (...) ‘그리서 밥묵을 자리를 찾아봐야겠다’고 (...) 그리갔고는 나와서 땀기다 없은게로, 낙오자가 된거여 인자, 일자리가 없은게로. 그리갔고 그 질로는 인자 전화도 그 무렵에는 오고 그렸는디 인자 전화까지도 끊기부렀어. (...) 10년도 넘었을거요. (...) 인자 딱 마흔이여(숨 죽이는 소리로).”(C 할머니)

적극적인 교육지원을 한 C노인부부도 마찬가지로 자녀교육의 실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6명의 자녀들 중 3명이 고등학교 때부터 도시에서 학교생활을 했는데 그들 모두 입시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난다. 2명의 아들들은 일탈행위를 일삼는 학교생활을 했고 공부를 잘 한 딸은 고3 때 정신질환에 걸렸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저 큰아덜 그 M고등학교 땀겼네. (...) 아 그 때도 3학년 때 공부를 안 혀고 그 저 전주서 보며는 저쪽에 욱모정 있는 디가 뭇 산이여? 고런 디나 올라 땀기고. (...) 그런 우환 중에 또 막내가 그 O여고 3학년 2학기 때 학교를 못 가부끄만. 공부를 무지히게 잘 혀. 일등이대 일등. (...) 났는데, 이상스럽게 학교에서 통지를 한 번 땀더라고. 그리서 가봤더니 야가 정상이 아니라고. (...) 지금도 그 P대학교 병원(서울)에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거 상담을 혀고 약 타다가 인자는 하루에 한 알 묵어. (...) 가꼬 인자 고리(서울 셋째 딸 집) 퇴거를 아조 히부등마. 퇴거를 히갔고 장애 2급인가 되드라고.”(C할아버지)

그런데 이와 같은 자녀교육의 실패는 자녀들의 불안정한 생계활동이나 실업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불안정한 생활은 다시금 비자발적인 미혼생활로 악순환 되고 있다. 이를 통해 본 ‘생애사주체들’은 자녀들이 현재 빈곤한 생활을 하는 것은 교육실패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큰 아들도 (결혼을) 안하고, 작은 아들도 안하고. (...) 큰 아들 나이가 지금 마흔 하나여. (...) 둘

22) B할머니의 장남과 관련한 이야기는 인터뷰내용의 중심 테마를 형성한다. 반면 그의 남편은 이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는 차이를 보인다. 그의 이야기에서는 전쟁과 그 이후의 정치, 경제 등의 시대적 경험이 주요 화두가 된다. 이는 여성들의 관심사가 주로 개인 및 가족적인 차원에 치중되어 표출되는 반면, 남성들의 관심사는 그 외에 사회구조적인 차원에서도 표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아울러 가족적인 ‘치부’를 드러내고 싶지 않는 그의 개인적인 심리·정서가 작용한 결과로도 해석된다. 반면 이어 분석되는 C노인부부의 경우에는 남편인 C할아버지 또한 자녀교육의 실패와 이후의 하향곡선을 이루는 자녀의 삶에 대해 진지한 이야기를 한다. 이는 ‘고통경험’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젠더차이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차이도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다.

째는 시방 서른 여섯이나? 서른 다섯이나? 서른 다섯이그만. (...) 직업도 지금 뭐 일정한 직업이 없고 그냥 그렇게 닳치는 대로 그러고 있어. 어트케허른 조까 몰라(쓸쓸한 웃음).”(C할머니)

물론 이와는 달리 자녀교육을 위해 소극적인 지원을 했음에도 ‘성공한’ 자녀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도 비자발적인 전직과 사업상의 어려움과 결부되어 이야기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 ‘성공’의 수준은 다른 자녀들이 처해있는 열악한 경제적 수준²³⁾을 상회하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해석된다.

“가(둘째아들)는 결혼히갔고 거. (...) 그(처 외숙) 회사로 가서, 그리갔고 거가서는 그냥 한 5년인가 있었는데. (...) 근디 시방 차장, 차장으로 있네티 (처 외숙)딸이 차장으로 외뵈어. 궁게 자꼬 어디로 좀 밀쳐날 데가 없인게로, 시방 구로 전자상가이다가 인자 대리점을 내갔고 거가 있네티 어쩔란가 모르제. (...) 가(막내아들)가 현디 잘 벌어. 차를 뭐 8천 얼마짜리를 타고 땡기잖아(호뭇한 웃음). 벤 처사업이라, 내가 요번에 가봤더니. 바벨 때는 즈그 누나들 불르고, 여직원이 둘이고 남자 하나고.”(A 할아버지)

반면 대부분의 소극적인 지원을 받은 본 ‘생애사주체들’의 자녀들은 중·고등학교만을 졸업하고 일찍 도시의 생계현장에 뛰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생일 등 특별한 기념일에 한해 노부모에게 용돈을 줄 수 있는 정도의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궁게 중학 나와갔고 인자 뗏이나 여그 저그 돌아땡기제. 어데 취직이라도 헐라고 인자 부산으로 가갔고 거가 또 거시기헐게 인자. 서울로 올라와갔고 인자 서울서도 여그 저그 좀 땡기. 궁게 인자 고생을 참 많이 했었지.”(D할아버지) “내 용돈 주제라우(낮은 목소리로 소곤거리듯). 우리 아들이 용돈 줘라우. 어머니 허라고, 용돈 주머는, 올 때, 생일씩때만 조개 줘라우. 그러제, 가들도 벌어묵고 산게.”(D할머니)

극단적인 경우에는 국민학교만을 졸업한 자녀들도 있는데 딸들만이 이에 해당²⁴⁾된 것으로 볼 때, 부모세대에 나타난 성차별적인 교육이 자녀세대에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4명의 자녀들 중 3명이 아들이고 1명만이 딸이라는 것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점이라고 하겠다.

이상으로 본 ‘생애사주체들’의 자녀들이 제한적인 교육기회만을 부여받음으로써 불안정한 도시생활을 하거나 실업자 생활(비자발적인 미혼생활)을 하는 도시의 빈곤층이 되어 있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주로 가족적인 차원의 ‘행한’ 행위가 사회구조적인 차원의 ‘진행곡선의 잠재력(Verlaufskurvenpotential)’²⁵⁾과 상호작용함으로써 나타난 것으로 해석되었다. 다음에서는 이와는 다

23) 본 ‘생애사주체들’의 총 36(20명의 아들과 16명의 딸)명의 자녀들 중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자녀들은 4명에 불과하다.

24) D노인부부의 4남 2녀 중 딸 모두가 국민학교만을 졸업하였다.

25) Schütze(1983; 2006)는 생애사의 진행이 ‘생애사주체’가 의도했던 것과 달리 이루어지게 되면 그 ‘생애사주체’는 ‘진행곡선’으로 빠져드는데, 이러한 과정구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요인이 ‘진행

른 사회적인 맥락의 경험이 논의되는데, 과연 어떠한 경험이 이야기되고 있을까?

⑤ 정치·경제적 사건의 부정적인 경험

사회적인 맥락에서의 경험은 남성노인들에 의해서만 비중 있게 이야기되는데, 6·25전쟁과 새마을 운동이 주요 화두가 된다. 먼저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분석하면, 좌우 이념적 대립으로 인해 민간인들의 생존이 크게 위협받았던 사건으로 그려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빨치산'으로 대표되는 좌익과 '진압군'으로 대표되는 우익의 양 진영에 대한 중립적인 역사 의식이 필요함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대체로 볼 때는 그 사람들(빨치산들) 나쁘다고 혀. 왜 그러냐? 여그 와서 떨어간게. (...) 근디, 인자 우리가 철이가 들고, 요것이 인자 민주화가 되고, 현재 요, 착착 세상이 좋아진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좀 해석을 하줘야 혀, 좋은 쪽으로도, 무조건 혀고 백 가지면 백 가지, 천 가지면 천 가지 그 사람들 나쁜 놈이다. 빨갱이다. 빨찌산이다 그렸는디, 응? 그것이 아니제, 시방 생각해보머는. 죽게 생겼는디 뭇 짓을 못 혀, 사람이, 응? (...) 아니 인자, 그런 사람들이 그때는 어치케 해부렸냐머는 소탕이라고 해갓고 군인들이 점령을 했잖여, UN군들이, 우리 군인들이 인자, 뭇 몇 사단이고 학교 와서 점령을 혀. (...) 고약헌 놈들이 들어와, 군인들이, 그리갓고 뽕뽕 순회를 힘신, 빨찌산을 색출을 혀고 빨찌산으로 간 집에는 불을 질러부러, 그냥. 응? (...) 궁게 우익 행렬이 너무 했제. 지금 생각 히봐도, 너무 헛어.”(B할아버지)

다음으로 새마을운동에 관한 이야기를 분석하면, 사유재산의 침해와 강제부역 등 주로 부정적인 경험이 이야기되고 있다. 공권력의 발동으로 논과 담 등 사유재산을 강제로 박탈당하고 마을길 등을 뒀는 부역에도 강제동원 되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는 것이다.

“궁게 그때 새마을 사업 박정희가 막 시작할 때, 여 마을 안 길 같은겨. 전부 녀의 담 뜯고, 지금인게 저 부지 값을 줬제. 10원 한 장도 안 줬어. 거 부지 냈서 전부 또 부역으로. (...) 아, 십 원도 안 줬어. 십 원도 안 줬어. 그때는 마을 안 길 다 헐 때, 녀의 논도 그려. 녀의 담 다 뜯어붙고, 그렇게 헛어. (...) (부역에) 안 나올 수가 없어. (...) 만약에 고의적으로 안 나오든가허머는 그 부락에다가 다 밀대가 있잖여? 밀대 말허자믄. 그때는 산림계, 산림계 그 사람들헌티 말만 히불면 살림을 못 혀. (...) 그때는 산림법이 무지허게 시어갓고(세어서). 술가지 한 개 히불면 벌금이 얼마머? 또 지소에다가 얘기를 허머는, 금방 와서 고런 트집이나 잡고. (...) 그 전에는 순경덜한테도, 아 지소를 못 갓잖여? 지소에를 못 들어갓어, 무서서. 아, 그렇게 써늘혀어, 지소가. 죄를 안 저도, 그 전에는 아조, 궁게 순경을 안 시킬라고 그렸어.”(C할아버지)

그런데 그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한 것은 이러한 부당한 공권력의 발동이 일회성에 그친 것이 아니라 면사무소와 지서 등의 행정기관을 통해 일상화 되었다는 점이다.

“그 관에서 허머는 그냥 독재 비젯헌게(비슷하니까). 명령으로 히불머는 좋은 것도 좋다고 허믄 좋은지, 나쁜 것도 좋다고 허믄 그냥 따라가부러. (...) 죽으라고 허믄 죽고, 오늘 어디 가서 뭇 나무 허

곡선의 잠재력'이라고 하였다.

라면 나무 회야 하고, 시긴대로 혀, 하자가 없어. (...) 말허자든 뭐 볼일을 허러 나가잖아? 면사무소를, 우리, 동사무소제, 면사무소를 가머는, 가면 조개 맨마덩허면(못 나가 보이면) ‘모레 오씨요’, 그런 그 낀은 아무 것도 아니다, 헛걸음을 시키여. (...) 근디 시골길을 고런 데로 걸어댕기는디, 그렇게 모질게 헛어, 모질게.“(B할아버지)

이상으로 결혼(제대) 이후 노년기 이전의 생애단계에서는 가족부양과 자녀교육의 주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어려움이 주요 화두로서, 가족적 차원에서는 가족부양과 자녀교육을 위한 다양한 행위를 ‘행하는’ ‘생애사적 행위모형’이 그리고 사회구조적 차원에서는 대물림된 빈곤, 도·공간 불평등한 교육제도, 6·25전쟁, 부정적인 새마을운동 경험 등 ‘당하는’ ‘진행곡선’이 이루어지는데, 양 유형이 상호작용함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주로 ‘고통의 경험’이 두드러진 ‘진행곡선’이 나타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생애사적 진행과정구조’의 거시적 및 미시적 차원에서 나타나는 ‘젠더관계’를 살펴보면, 남성노인들의 ‘생애사적 진행과정구조’에서는 개인적 및 가족적인 맥락만이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맥락도 나타나지만, 여성노인들의 ‘생애사적 진행과정구조’에서는 주로 가족적인 맥락이 나타난 젠더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생애사적 진행과정구조’의 미시적 차원에서 나타난 ‘젠더관계’는 남성노인들은 주로 ‘바깥일’을 위주로 하는 단일한 역할을 담당하며 ‘집안일’을 수행하는 데에 소극적인 반면, 여성노인들은 ‘집안일’과 ‘바깥일’의 ‘이중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담당한 젠더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젠더가 ‘구성’되고 ‘탈구성’되는 ‘doing gender’가 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포착할 수 있었다.

그럼 그들의 노년기에는 어떠한 ‘생애사적 진행과정구조’가 나타나고, 이러한 구조에는 어떠한 ‘젠더관계’가 나타나고 있을까?

(3) 노년기의 생애단계

본 ‘생애사주체들’의 노년은 ‘산’²⁶⁾을 앞에 두고 있는 것과 같은 ‘고통스러운’ 삶으로 비유되고 있다. 그들이 말하는 ‘산’이란 ‘죽을 때까지’ 혹은 ‘못 움직일 때까지’ 등으로 표현되는, 기약 없는 시간까지 자립적인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이야기는 일상생활의 유지를 위한 건강침해의 정도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에 따라 여러 상황으로 나뉘어 행해지는데, 그 핵심내용은 강요된 자립적인 생활, ‘막다른 골목’으로서 예견되는 요수발상황 그리고 이러한 요수발상황에서 예견되는 무력감으로 압축된다. 그런데 개인적 및 가족적인 차원에서는 자립적인 생활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행하는’ 행위가 두드러진 ‘생애사적 행위모형’이 나타나지만, 사회구조적인 차원에서는 불합리한 농업정책과 미흡한 노인복지정책 등에 의해 ‘진행곡선’이 나타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고통의 경험’이 두드러진

26) F할머니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생애를 ‘끊임없이 산이 나오는 삶’으로서 압축적으로 표현하였는데, 이는 여성노인들뿐만이 아니라 남성노인들의 삶도 대변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렇게 나는 사연이 많은 사람이여요, 아조. (...) 끄트리 가서는 이 해나 저 해나, 인자 다음 해는 괜찮으지, 괜찮으지 해라도, 막 또 산이 나오고, 또 산이 나오고 그러네요, 지금(쓸쓸한 웃음).“(F할머니)

'진행곡선'이 나타난다.

그럼 먼저 자립적인 생활을 하도록 강요받고 있는 노년은 어떠한 생활을 의미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① 강요된 자립적인 생활

본 '생애사주체들'은 노년기에도 농업 및 부업활동을 지속하고 있는데, 가족과 사회로부터 자립적인 생활을 하도록 강요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한 이야기가 남성노인들에 의해서는 가족과 사회의 양 차원에서 행해지는 반면, 여성노인들에 의해서는 가족의 차원에서만 행해지는 젠더차이를 보인다. 먼저 가족 차원에서 행해진 이야기를 분석하면, 이농한 자녀들이 경제적인 부양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노년기에도 경제활동을 해야만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말은 애기들이 뭐 ‘집에서 놀으라, (일)허지 말라’고 히도 지기가 돈을 착착 주면서 허지 말라고 허야지(허탈한 웃음). 지기가 그러고 줄 수가 없어요. (...) 뽀도시 인자 장가가고 뽀도시 집 장만하고 집 세금도 내기가 힘들고 뭐, 한 달에 얼마씩 가져야 낸다고 히싼게(허탈한 웃음).”(B할머니)

그리고 사회적 차원에서 행해진 이야기를 분석하면, 불합리한 농업정책으로 젊은이들이 농업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만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대를 이어서 고향 선산도 지키고, 우리 조상도 지키고 하나 살아라.’ 그러믄 이 놈들이 ‘예, 소리를 안 허고, 뭐라고 허는고는, ‘아부지, 뭇허게요? 계산을 히보쇼, 논 2,000평인데, 쌀로 까락까락 따지며는 뭇 가마니나 나오요? (...) 계산을 허머는 40가마니 아니요? 40가마니 돈이 얼마요?’ 그러, ‘그러믄 그 농사비용으로 한 절반 들어가지 안, 허요? 그믄 20가마니 갖고 우리가 여그서 뭇을 허졌소?’ (...) 헐 말이 없어부러. (...) 마음은 편안허. 근디 영리목적으로나 뭇을 허갔고는 장래 여지가 없다 그 말이여.”(B할아버지)

이처럼 노년기에도 자립적인 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본 '생애사주체들'은 농업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업활동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내가 못 허게 생기드락까지는 히야졌다. 못 허게 생기드락까지(웃음).’ 뭐 병이 났다든지 그러믄 그냥 못 헌 것이제.”(A할아버지) “아무튼 그양 늙은 사람들도 별라고 언제나 노력을 해요. 농사도 쪼깨여. 우리집 농사도, 우리 애들허고 뽀도시 쌀 갈라목을 정도만 되야. 고놈만 갖고는 생활할 수 없어요. 궁게 벌어야 허.”(B할머니) “부업이 (자주) 없으니까 그냥, 누가 뭐 좀 일 있다고 그믄 그냥 하루씩 나가서, 내 일은 체쳐놓고, 도라지 까는 것, (...) 하우스 가면 저 상추도 뜯고, 딸기 밭에 가서 딸기 잎씩도 뜯고, 또 꼬치도 따라 하면 또 꼬치도 따고, (...) 지금도 참, 작년 그러께까지만 히도, 애들 집이 가갔고 그 노가대 일헌 데 가서, 뭐 벽돌 썬 데가 있거덩. 거가서 또 뭇일도 좀 해주고.”(C할머니)

그러나 자립적인 노년을 위해 이처럼 지속적으로 농업 및 각종 부업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본 '생애사주체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해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 이거 농사지는 것 보담 더 나사. (...) 내가 한 3년 거 공사판에를 따라 다녔어. (...) 하루, 그 때는 5만 원배끼는 안 줬그만. 지금은 6만 원 주제. 그러도 한 달에 20일은 히어. 금계 매달 100만 원씩은 나오제. 1년이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다. 농사 몇 마지기 지어야 1,000만원 못혀.”(C할아버지)
 “일자리 찾아서 뭇이라도 히야지. (...) 안직은 나이 있고, 아무튼 그양 늙은 사람들도 별라고 얼마나 노력을 해요. 농사도 쪼개여. (...) 고놈만 갖고는 생활할 수 없어요. 금계 벌어야 히. 뭇이라도 히서 벌어야는디.”(B할머니)

그렇지만 그들은 공적 부조와 국민연금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험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뿐 복지적 개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는, 낮은 수준의 복지인식을 보인다. 예컨대 직접적인 경험을 한 자활사업²⁷⁾과 같은 공적 부조에 대해서는 농업위주의 자립적인 생활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200)4년도부터 오늘날까지 히어. (...) 내 속살로는 여그(자활사업)가 시방 떨어질까 싶어서 걱정스러운디. 뭇랑가 모르겼어요(웃음). 인자 사정도 못혀요. 2차 했는디 또 어트케 3차까지 다녀요? 그렇게로 인자 뭇이라도 벌 거를 찾아야 히.”(B할머니)

반면 직접적인 경험을 한 국민연금과 같은 소득보장책에 대해서는 자립적인 노년기 생활에 거의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이처럼 직접적인 경험에 기초한 복지인식이 서로 상반되게 나타나는 것은 젠더의 차이보다는 복지의 실제적인 기여여부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65세 되던 해부터. 그니까 한 5년 넣고 땃제. 금계 10만원도 못 되야. 98,000원인가 되. 근디 고거 타갔고는 (...) 뭇 담배 피는 사람 같으면 담배 뭇도 못되고.”(C할아버지)

그런데 자립적인 생활을 위한 이러한 그들의 생활이 반드시 위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그들은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의존적이 아닌 독립적인 노년을 보낼 필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점이 바로 ‘기회’를 의미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자녀들을 위해 농산물을 제공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주는 노년(gebendes Alter)²⁸⁾’을 일상화하고 있는

27) 6쌍의 노인부부 중에서 65세 미만인 B할머니만이 유일한 자활사업대상자이다. 대부분의 본 ‘생애사주체들’은 공적 부조에 대해 간접적인 경험만을 한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대체로 수급권자의 복지에 대해 권리를 인정하는 한편, 수급내용에 대해서는 질투의 감정도 노출하는 양가적인 감정을 표출한다. 이는 수급권자의 수급 이전의 ‘결핍상태’에 대한 우울감과 수급 이후의 ‘복지상태’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작용하여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게 막 어떤 사람들은 그러고, 그런 사람들 다 우리덜, 우리덜이 세금내서 그렇게 산다고. (...) 있으면 또 세금도 내야고, 없는 사람 도와도 줘야고, 아 근디 보며는 편하게 산 사람(수급권자)도 그런 대로 잘 살고, 힘들게 산 사람(비수급권자)도 마찬가지로, 금계 다 그것이 자기 복이라. (...) 뭇 누가 갖다 준 것만 먹은 사람도 복이고, 내가 죽도록 히서 먹은 것도 복이고.”(C할머니)

28) Lehr and Thomae(1987)는 독일사회에 부양을 받는 수동적인 노인만이 아니라 풍부한 인생경험,

것도 동일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는 점이라고 하겠다.

“내가 못 하게 생기드락까지는 히야겠다. 못 하게 생기드락까지(웃음). 뭐 병이 났다든지 그러든 그냥 못 현 것이제. 안직까지 우리는. 애들은 농사를 녀의야를 싹 쥐불고, 내야만 지라고 허지. 내야만 지며는 아, 즈그들 쌀 줄 것이 없어. (...) (둘째아들 내외에게)2,000만원 줬는데, 1,000만원을 지가 갖고 갔은게 1,000만원은 그냥 준다고 했었다. 올해 농사져갔고 하이턴 싹씩 있는 대로 다 금은게 2,000만원 갚았어, 그냥. (...) 궁게 애들이 집 살때마다 1,000만원도 주고 2,000만원도 주고, 형편봐서 그랬는다.”(A할아버지) “양식도 공급을 히주고 된장, 고치장 그 다음에 마늘, 즈그들 묵으라고 전부 다 히주고. (...) 살 때까지는 자식들을 부양을 히주어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허니까 그냥 있어요.”(F할아버지)

그러나 그들의 '주는 노년'은 자립적인 생활을 실현시키지 못한 상황에서 희생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볼 때, 독일노인의 '주는 노년'과는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여성주의적 관점에서는 그들의 삶 속에서 젠더의 '구성'뿐만 아니라 '탈구성'의 'doing gender'가 나타나는 것도 '기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점이라고 하겠다. 예컨대 B노인부부의 경우, 부인은 자활사업참여와 같은 '바깥일'을 그리고 남편은 농업활동 위주의 '바깥일'을 하며 '집안일'을 공유한다. 그러나 이 부부의 경우에도 젠더의 '탈구성'을 위한 노력은 부업일로 대표되는 '집안일'에 대한 남편의 소극적인 역할분담에 그치는 한계를 보인다.

“안식구는 시방 (자활사업에) 가서 그 애를 받고 있는데, 남들 눈초리 다 받아감서. (...) 인자 내가 백판 놀아볼머는, 부부지간이도 양심이 있어. 하이구(여기에서부터 웃으면서) 인자 그러든 인자 갔다 외서는 뗏을 인자 꼼지락꼼지락 히노면 뗏이 인자 눈앞에 보이잖아? 그러든 인자 암말도 안허고 (...) (부업살림은) 안해요. 왜 안헌고니는 인자 출퇴근을 허니까, 출퇴근을 허니까.”(B할아버지)

반면 C노인부부의 경우에는 남편이 공사장 일을 하는 동안 부인은 농업활동인 '바깥일'을 거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통해 젠더의 '탈구성'이 남성노인들보다는 여성노인들의 삶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음마, 아 이거(공사장일) 농사지는 것 보담 더 나사. 내가 요렇게 생겼어라도 한 3년 거 공사판에 를 따라 다녀어. 근데, 궁게 인자 주로 그양 궁게 (농사일은) 안식구가 주로 많이 했어.”(C할아버지)

이상으로 본 '생애사주체들'이 노년기에도 농업 및 부업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자립적인 생활을 하도록 가족과 사회로부터 강요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이러한 그들의 삶은 '궁지에 내몰린' '위기'의 노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는데, 독립적인 노년을 보내고자 하는 새로운 노년관이 싹트고 있으며 나아가 '주는 노년'이 일상화되고 있는 것을 볼 때, 동시에 '기회'를 의미할 수도 있음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기회'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의 농업

손자녀돌봄, 노인수발, 자원봉사 등의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노인이 더 많음을 강조하며, 세대간 교환관계 면에서 '받기'보다는 오히려 '주며' 생활하는 노년을 '주는 노년'이라고 하였다.

및 부업활동은 중풍이나 치매 혹은 치명적인 질병 등에 의해 요수발상황에 빠질 때까지는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도출할 수 있었다. 실제 중병 중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농업활동을 한 A할아버지가 인터뷰를 마치고 한 달 반이 지난 시점에서 병사한 것은 이를 반증한 사례²⁹⁾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여성주의적 관점에서는 남성노인들은 '바깥일'을 위주로 하는 단일한 역할을 담당하며 '집안일'을 수행하는 데에 소극적인 반면, 여성노인들은 '집안일'과 '바깥일'의 '이중적인 역할'을 적극적으로 담당한 젠더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그렇다면 요수발상황에 직면할 경우에 대한 그들의 인식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

② '막다른 골목'에 처한 삶으로서 예견되는 요수발상황

자립적인 생활을 위해 더 이상 노력조차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는 요수발상황에 대한 본 '생애사주체들'의 인식에는 젠더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남녀노인들 모두 자녀들에 의한 수발보다는 요양원과 노인전문병원 등 생활시설에서의 수발을 선호한다.³⁰⁾ 이는 자녀들에게 '집'이 되는 것을 꺼리는 한편, 자녀들에 의한 가족수발의 가능성이 매우 희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도 나만 허면 여그서 그냥 살아야제, 올라가서 못 살 것 같어. (...) 여그 맨 그런 사람 꼭 차붙어. (...) 못 걸어댕기머는, 그리도 저러도 못허머는 저, 내 생각에는 여그 여. (노인전문)병원으로 가야 할 것 같어. (...) 그때가 질로 걱정이제. 어르게 눈을 감아야 어, 좋게 죽을 것인가? 그러디.”(A할아버지) “자식들한테로 가서, 누가 시방 뭐 피실라고 허요? 그런 것 보당도 여런 데(노인요양시설)가 돈 조개 넣고 있는 것이 낫을 것 같여요. 그러제, 어디 서울로 어디로 가고자픈 생각은 없여요.”(A할머니) “그나저나 여그서 살아야제. 아그들한테 어디가 붙여요?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좋제, 한 테가 붙어 있으면 싫으라고 해요(웃음). (...) 지기한테 이렇게 힘히게 생기갔고 있어봐. 누가 좋다고 험가. (...) 그렇지만 ‘양로원 같은데 들어가서 신간 편히게 살머는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B할머니)

이처럼 자녀들에 의한 가족수발을 기대하지 않는 것은 세대 간의 오랜 별거생활로 상이한 생활스타일이 형성되었고 아울러 상호소외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파트에 가서 자식들 집 지키는 것배기는 안된단 말이여. 못 있다고 그려. 갑갑히서 못 있어. 자, 내가 안 사람이 누가 있어? (...) 그양 공원에 가서 뭇 할 것이요, 내가? (...) 하루 이틀이여, 공원도 금계 살들 못혀. 갑갑혀.”(F할아버지) “대치 도시로 간다고 히서, 새끼들이 괴롭히면 지그 싫거던 또, 잉? 새끼들보고 만날 돈 벌려봐야, 두서너 번은 줄거여. 왜? 아버지 어무니니까, 잉? 서너번은 줄 것이 다 그 말이여. 두서너 번 벌려면 고개 양쪽으로 돌려, 어느 효자도, 어느 효녀고.”(B할아버지)

29) 2006년 12월 말인 인터뷰 당시, A할아버지는 자녀들이 거주하는 서울의 한 Q대학병원을 오가며 검진을 받고 있었는데 명확한 병명을 진단받지 못한 상태였다. 추수 이후에서야 몸의 이상을 느꼈다고 말한 그는 인터뷰 이후 몇 차례의 입원생활을 했으나 불과 1달 반이 지난 올해 2월 초에 사망했다.

30) 시설수발의 선호는 가족수발의 실현성이 희박할 것으로 예상된 상황에서 재가노인복지에 대한 경험의 미흡 및 부재로 인해 이처럼 시설위주의 편향된 복지인식으로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설부양을 선호하는 것과 이러한 선호한 바를 실현시킬 수 있는 경제적 능력 사이에는 괴리가 나타난다.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마지막 삶의 단계는 가족에 의해서도 그리고 사회에 의해서도 책임 있게 보장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한다.

“돈만 있으면 양로원에도 갈 수가 있제라우, 글안히요? 돈이 없어서 못 가제. (무료) 양로원(요양원)에 간 사람들 편하다고 그러디다.”(D할머니)

따라서 그들에게 다가오는 미래는 ‘죽을 것도 문제고 살아도 문제’인 ‘막다른 골목’에 처해진 절망적인 삶이 될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국가에서 똥 묻은 차 내불던지 어찌든지. (...) 그러도 안 험다고 허믄 인자 몰라. 한 잔 마셔야 혈관가 그때는, 아조 극약을?”(B할아버지) “어쩔 때는 그냥, (...) 왜 이렇게 힘이 드나? (...) 그런 쓰잘데기 없는 생각이 자꼬 들어. 그때(요수발상황에 처할 때)까지는 생각 안혀. 찻(혀를 차며) ‘닥친대로 살자. 어트케 살든가 그냥, 살아보자’ 그러제(쓰쓸한 웃음).”(C할머니) “그나저나 우리가 죽을 것도 문제가 있고 살아도 문제가 있고 지금 그래요.”(F할아버지)

때문에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하기 전에 죽음을 맞고 싶다는 욕구가 표출되기도 한다. 요수발상황에서의 연장된 삶은 자녀들에게 ‘짐’이 될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죽어야 혀. (...) 그리야 아들 딸 다 살제. (...) 지금 애기들이 막 ‘어머이 아버지’가 오래 살아야 험다’고 허지만, 그거 입에 붙은 말이여. 뭇호게 그리 오래 살아요? 나 그렇게 오래 살고 싶은 맘 없어라우. (...) 누구더니 오래 살머는 존꼴도 못봐라우. 좀 살다 죽어야제. 존꼴 못봐요.”(D할머니)

그렇다면 실제로 요수발상황에 직면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나가고 있을까?

③ 요수발상황에서의 무력감

본 ‘생애사주체들’ 중 실제로 요수발상황에 직면해있는 경우는 중증 당뇨병을 앓고 있는 E할머니이다. 따라서 그와 수발자인 E할아버지를 통해 요수발상황에서의 구체적인 대처방식에 대해 살펴볼 수 있겠다. E할아버지는 ‘바깥일’과 ‘집안일’의 이중적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을 부엌일 등의 ‘집안일’을 새롭게 배움으로써 극복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는 점차 소진 상태에 빠진다.

“안식구는 눈이 안 보이니까 아무 짓 못 허제. (...) 아, 그러서 내가 토옹 밥도 허고, 반찬같은 것은 내가 헐라니까 뭐 양념을 어떻게 혀야 허는 것인지 모르니까 자기가 무엇 무엇을 어떻게 넣고 허라고 허서 반찬도 내가 마련을 허제 전부. 허란대로(쓴 웃음). (...) 앞으로 생활을 허는 것이 큰 일이제, 참 말로. (...) 혼자 한 필지를 지어 보니까 농사를 짓기는 짓겠는디. 농약을 한 번씩 헐라머는 그렇게 애로가 많네. 혼자 가서 헐라고 허머는 심정이 상허고, 찻(혀를 차며), 잡아줄 사람이, 줄이라도 끌어줄 사람이 있어야는디, 그렇고 안험게 어려워서 못 헐 것 같혀. 나 농사 그것도 명년에는 안 지어야겠어, 혀어(한숨).”(E할아버지)

요수발자인 E할머니는 이러한 그의 무기력감이 일상생활 속에서는 자살에 대한 암시로 노출될 정도로 심각하다고 이야기한다. 아울러 그의 이러한 부정적인 심리상태는 다시 E할머니에게 전이되어 악영향³¹⁾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편이) 안 살고 싶대야, 만날 그러. 모든 게 다 짜증이 나고 그런 게 그러제. 사는 게 재미가 없고 영감도 나이도 먹고, 나이가 먹다 보니까 이제 일도, 힘에 부치는 일도 있고 허니까 그렇고 (...) 그러니 사는게 안 좋대야. 죽고만 싶제. (...) 인제 여 와서 사니까 영감 그냥 내 앞에서 험한 짓 안하고 살다 죽으면 그거나 바라고 (...) 걱정스럽제. 만날 죽고는 싶다고 그러고.”(E할머니)

이상으로 노년기의 생애단계에서는 자립적인 생활을 강요받는 상황에서 농업 및 부업활동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고통’ 및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없는 요수발상황에 직면할 경우에 대한 불안감이 주요 화두로서, 개인적 및 가족적인 차원에서는 다양한 노력을 ‘행하는’ ‘생애사적 행위모형’이 그리고 사회구조적인 차원에서는 불합리한 농업정책과 미흡한 노인복지정책 등으로 ‘궁지에 내몰린’ 삶, ‘막다른 골목’에 처한 삶으로 예견되는 요수발상황 그리고 요수발상황에서의 무력감 같은 ‘고통의 경험’이 두드러진 ‘진행곡선’이 이루어지는데, 양 유형이 상호작용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진행곡선’이 나타나는 것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여성주의적 관점에서는 남성노인들은 ‘바깥일’을 위주로 하는 단일한 역할을 담당하며 ‘집안일’을 수행하는 데에 소극적인 반면, 여성노인들은 ‘집안일’과 ‘바깥일’의 ‘이중적인 역할’을 적극적으로 담당한 젠더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젠더가 ‘구성’되고 ‘탈구성’되는 ‘doing gender’가 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포착할 수 있었다.

5. 결론

본 ‘생애사주체들’의 ‘생애사적 진행과정구조’는 개인적 및 가족적 차원에서는 ‘생애사적 행위모형’을 그리고 사회구조적인 차원에서는 ‘진행곡선’을 이루는데, 양 유형이 상호작용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진행곡선’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생애사적 진행과정구조’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차원의 ‘젠더관계’가 나타나고 있음을 밝혔다. 첫째, ‘생애사적 진행과정구조’의 미시적 및 거시적 차원에서 ‘젠더관계’가 나타났는데, 남성노인들의 ‘생애사적 진행과정구조’에서는 개인적 및 가족적인

31) 자료수집 이후 9개월이 지나 E할아버지를 재 인터뷰한 결과, 그의 가정이 해체되어가는 과정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E할머니는 올해 1월 초 당뇨병 합병증(심장질환)으로 전주시의 한 대학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퇴원 후 현재까지 서울의 언니 집에서 간병을 받고 있다고 하였다. 농촌에 홀로 남아 농사를 짓던 E할아버지는 들에 가던 도중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그 역시도 남원의 R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도 투병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부인의 서울에서의 요양생활이 이미 그의 교통사고 이전에 시작된 것으로 볼 때, 가정의 해체는 이미 교통사고 이전에 요수발상황의 악화로 인해 시작되어 사고를 기점으로 심화되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들이 직면한 이러한 ‘위기’는 본 ‘생애사주체들’이 예측하고 있는 ‘막다른 골목’에서의 절망적인 삶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

맥락만이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맥락도 나타난 반면, 여성노인들의 '생애사적 진행과정구조'에서는 주로 개인적 및 가족적인 맥락이 나타난 젠더차이를 보였다. 둘째, '생애사적 진행과정구조'의 미시적 차원에서 '젠더관계'가 나타났는데, 남성노인들은 생애단계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으나 '바깥일'을 위주로 하는 단일한 역할을 담당하며 '집안일'을 하는 데에 소극적인 반면, 여성노인들은 전 생애에 걸쳐 '집안일'과 '바깥일'의 '이중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담당한 젠더차이를 보였다. 이를 통해서 젠더가 '구성'될 뿐만 아니라 '탈구성'되는 'doing gender'가 생애사에 나타나며, 나아가 이러한 'doing gender'는 생애단계와 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포착할 수 있었다.

이러한 그들의 '생애사적 진행과정구조'는 결혼과 노년기를 기점으로 하여 3개의 생애단계로 나누어 '젠더관계'에 주목하여 재구성되었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 이전의 생애단계에서는 생존을 위협하는 절대빈곤과 그로 인한 교육기회의 박탈이나 제한에 대한 경험이 주요 화두로서, '생애사적 진행과정구조'는 개인적 및 가족적인 차원에서는 '행하는' 행위에 의해 '생애사적 행위모형'을 그리고 사회구조적인 차원에서는 '당하는' 행위에 의해 '진행곡선'을 이루는데, 양 유형이 상호작용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고통의 경험'이 우세한 '진행곡선'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 단계에 대한 논의가 다른 생애단계와 비교해볼 때 매우 제한적인 데에 그친 것은 전체 삶에서 주변화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리고 여성주의적 관점에서는 정형화된 젠더역할만이 아니라 '바깥일'과 '집안일'의 '이중적 역할'도 남녀 모두 감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젠더가 '구성'되고 '탈구성'되는 'doing gender'가 남녀 모두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포착할 수 있었다.

둘째, 결혼 이후 노년기 이전의 생애단계에서는 가족부양과 자녀교육의 주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어려움이 주요 화두로서, '생애사적 진행과정구조'는 개인적 및 가족적 차원에서는 가족부양과 자녀교육을 위한 다양한 활동 등에 의해 '생애사적 행위모형'을 그리고 사회구조적인 차원에서는 대물림된 빈곤, 도·농간 불평등한 교육제도, 6·25전쟁, 부정적인 새마을운동경험 등에 의해 '진행곡선'을 이루는데, 양 유형이 상호작용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주로 '당하는' '고통의 경험'이 두드러진 '진행곡선'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성주의적 관점에서는 남성노인들은 '바깥일'을 위주로 하는 단일한 역할을 담당하며 '집안일'을 수행하는 데에 소극적인 반면, 여성노인들은 '집안일'과 '바깥일'의 '이중적인 역할'을 적극적으로 담당한 젠더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젠더가 '구성'되고 '탈구성'되는 'doing gender'가 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포착할 수 있었다.

셋째, 노년기에는 자립적인 생활을 강요받는 상황에서 농업 및 부업활동을 지속해야하는 '고통' 및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없는 요수발상황에 직면할 경우에 대한 불안감이 주요 화두로서, '생애사적 진행과정구조'는 개인적 및 가족적인 차원에서는 다양한 노력을 '행하는' '생애사적 행위모형'을 그리고 사회구조적인 차원에서는 불합리한 농업정책과 미흡한 노인복지정책 등으로 '궁지에 내몰린' 삶, '막다른 골목'에 처한 삶으로 예견되는 요수발상황 그리고 요수발상황에서의 무력감 같은 '고통의 경험'이 두드러진 '진행곡선'을 이루는데, 양 유형이 상호작용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진행곡선'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성주의적 관점에서는 남성노인들은 '바깥일'을 위주로 하는 단일한 역할을 담당하며 '집안일'을 수행하는 데에 소극적인 반면, 여성노인들은 '집안일'과 '바깥일'의 '이중적 역할'을 적극

적으로 상당한 젠더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젠더가 '구성'되고 '탈구성'되는 'doing gender'가 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포착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는 본 '생애사주체들'의 삶을 '젠더관계'에 주목하여 생애사적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는데, 이로부터 추론한 본 연구의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³²⁾

첫째, 전체적으로는 '진행곡선'으로 나타난 그들의 '생애사적 진행과정구조'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및 가족적인 차원에서는 '생애사적 행위모형'이 전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때, 최대의 위기상황으로 예견되는 요수발상황을 제외하고는 홀로 될 경우에도 자립적인 생활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도출되는 바, 자립적인 노년을 실현시키고 나아가 이러한 생활을 가능한 한 오랫동안 유지해나갈 수 있도록 소득보장책을 비롯한 다양한 노인복지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겠다. 그런데 이러한 노인복지방안은 도·농 간의 불평등한 노인복지인프라와 요보호노인위주의 '선별적인 복지정책'으로 인해 '일반'노인들은 실제적인 복지서비스로부터 거의 배제되어있는 작금의 현실을 감안하여 도·농 간의 평등한 복지인프라구축 및 '보편적인 복지정책'에 입각해 강구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요수발상황에 직면할 경우에도 자녀들에 의한 가족수발보다는 (전문)요양원이나 노인(전문)병원 등과 같은 시설수발을 선호하는 점에 주목하여, 시설부양을 위한 인프라구축 및 서비스의 공급에 박차를 가해야 하겠다. 그러나 인구사회학적 측면에서 볼 때 장차 농촌노인의 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러한 변화에 상응한 장기적인 안목의 시설부양책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시설부양을 위한 인프라구축 시에는 자녀들의 생활근거지가 도시인 점도 제고할 필요가 있겠다. 오히려 자녀들과의 접근성이 용이한 도시지역에서의 시설수발이 현실성 있는 대안일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시설수발에 대한 선호는 가족수발의 실현성이 희박할 것으로 예상된 상황에서 재가노인복지에 대한 경험의 미흡 및 부재로 인해 시설위주의 편향된 복지인식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시설수발뿐만 아니라 재가수발까지도 아우르는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를 통해 요수발상황에 대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그들의 전 생애에서는 '고통스러운 경험'이 강한 '진행곡선'이 주를 이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및 가족적인 차원에서는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풀'(김수영, 1978)처럼 '다시 일어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위가 두드러진 '생애사적 행위모형'을 이룬다는 결과에 근거한 것으로서, 수발과 일상적인 지원서비스 등을 포함한 재가복지의 적합성과 필요성이 매우 큼을 시사해주고 있다고 하겠다.

셋째, 아울러 생애사에 나타난 '젠더관계'에 주목한 노인복지를 실천해야 하겠다. 그들의 미시적인 차원의 생애사에서는 젠더가 '재구성'될 뿐만 아니라 '탈구성' 및 '구성'되는 'doing gender'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doing gender'는 생애단계와 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젠더차이를 보이는바, 이에 주목한 실천적 복지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독거상황에 직면할 경우 남성노인들도 선호하

32)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특히 빈곤한 농촌지역의 노인부부들을 '연구주체'로 하였다는 점에서, 이질적인 농촌노인집단을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를 노출시키고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는 농촌노인집단 내에 나타나는 지역적 차이(interregionale Disparität)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는 자립적인 생활을 지속해나갈 수 있도록, '이중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젠더의 '탈구성' 및 '구성' 능력을 강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즉 남성노인들의 제한적인 젠더의 '탈구성'과 '구성'의 능력을 강화시켜 '바깥일'뿐만 아니라 '집안일'까지도 해나갈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 강유진·한경혜. 2002. "한국여성노인의 생애사분석을 통한 노년기 삶의 이해. -인생 전환점·삶의 맥락·적응전략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7(3): 99-126.
- 김수영. 1978. 『거대한 뿌리』. 민음사
- 김인숙. 2007. "한국 사회복지 질적 연구: 동향과 의미". 『한국사회복지학』 59(1): 275-300.
- 박기남. 2004. "생애구술을 통해 본 독거여성 노인의 삶". 『페미니즘 연구』 4: 149-194.
- 안진. 2005. "생애사 연구를 통한 빈곤여성노인의 삶의 이해". 제 8회 비판사회학대회 발제문, 한국산업사회학회.
- 양영자. 2007. "손자녀 교육을 위해 이농한 후기 여성노인의 삶에 대한 생애사적 연구". 『한국노년학』 27(1): 235-254.
- 이효선. 2006. "질적 연구에 의한 한국 노인들의 삶의 이해". 『노인복지연구』 31(봄호): 73-99.
- 이효선. 2007. "생애사 연구를 통한 중도장애인의 삶의 재구성 - 셋제(F.)의 이야기식 인터뷰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32: 299-330.
- 한경혜. 2004. "생애사 연구를 통한 노년기 삶의 이해". 『한국노년학』 24(4): 87-106.
- Amann, A. 1983. *Lebenslage und Sozialarbeit. Elemente zu einer Soziologie von Hilfe und Kontrolle*. Berlin: Duncker und Humblot.
- Becker-Schmidt, R. 1987. "Die doppelte Vergesellschaftung - die doppelte Unterdrückung: Besonderheiten der Frauenforschung in den Sozialwissenschaften." pp. 11-25. in *Die andere Hälfte der Gesellschaft*, edited by L. Unterkirchner and I. Wagner. Wien: Verlag des österreichischen Gewerkschaftsbundes.
- Clemens, W. and G. Naegele. 2004. "Lebenslagen im Alter." pp. 387-402, in *Enzyklopädie*, edited by A. Kruse and M. Martin. Bern: Göttingen: Toronto: Seattle: Verlag Hans Huber.
- Dausien, B. 1994. "Biographieforschung als "Königinnenweg"? Überlegungen zur Relevanz biographischer Ansätze in der Frauenforschung." pp. 129-153, in *Erfahrung mit Methode. Wege sozialwissenschaftlicher Frauenforschung*, edited by A. Diezinger, H. Kitzer, I. Anker, I. Bingel, E. Haas and S. Odierna, Freiburg: Kore.
- Dausien, B. 1996. *Biographie und Geschlecht. Zur biographischen Konstruktion sozialer Wirklichkeit in Frauenlebensgeschichten*. Bremen: Donat Verlag.
- Lamnek, S. 1993. *Qualitative Sozialforschung. Methoden und Techniken*, Bd. 2, 2. bearbeitete Aufl., Weinheim: Beltz: Psychologie VerlagsUnion.
- Lehr, U. M. and H. Thomae. 1987. *Formen seelischen Alterns. Ergebnisse der Bonner Gerontologischen Längsschnittstudie(BOLSA)*. Stuttgart: Enke.
- Mayring, Ph. 2002. *Einführung in die qualitative Sozialforschung*. Weinheim: Basel: Beltz Verlag.

- Marotzki, W. 2006. "Forschungsmethoden und-methodologie der erziehungswissenschaftlichen Biographieforschung" pp. 111-135. in *Handbuch erziehungswissenschaftliche Biographieforschung*, edited by H.-H. Krüger and W. Marotzki, Wiesbaden: VS Verlag.
- Schütze, F. 1983. "Biographieforschung und narratives Interview." *Neue Praxis*, 13: 283-293.
- Schütze, F. 1984. "Kognitive Figuren des autobiographischen Stegreiferzählens." pp. 78-117. in *Biographie und soziale Wirklichkeit. Neue Beiträge und Forschungsperspektiven*, edited by M. Kohli and G. Robert, Stuttgart: Metzler.
- Schütze, F. 1987. *Das narrative Interview in Interaktionsfeldstudien: erzähltheoretischen Grundlagen. Teil I: Merkmale von Alltagserzählungen und was wir mit ihrer Hilfe erkennen können*. Hagen: Fernuniversität.
- Schütze, F. 2006. "Verlaufskurven des Erleidens als Forschungsgegenstand der interpretativen Soziologie." pp. 206-237. in *Handbuch erziehungswissenschaftliche Biographieforschung*, edited by H.-H. Krüger and W. Marotzki, Wiesbaden: VS Verlag.
- Völter, B., B. Dausien, H. Lutz and G. Rosenthal. 2005. *Biographieforschung im Diskurs. Theoretische und methodologische Verknüpfungen*. Wiesbaden: VS-Verlag.
- West, C. and D. H. Zimmermans. 1987. "Doing Gender." *Gender and Society* 1(2): 125-151.

Reconstruction of 'the Structure of Biographical Processes' on the Lives of the Elderly Couples in the Rural Area

Yang, Yeung Ja
(Kyungnam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current research is to reconstruct the 'structure of biographical processes' on the lives of the elderly couples residing in the rural area in terms of 'gender relations.' Autobiographical-narrative interviews with each of the six elderly couples were conducted. Interview data were analyzed through the eclectic application of Schütze's autobiographical-narrative interview and Dausien's feministic biographical research methods. Research findings revealed that each biography of the elderly couples represents the 'structure of biographical process' that shapes 'trajectories.' Such 'trajectories' were found to characterize two dimensions of 'gender relations.' First, on the micro- and macro-levels of 'trajectories,' 'gender relations' were noticed. The 'trajectories' of the male elderly were found to be both in personal and familial contexts and in socio-structural context, while those of the female elderly were found to be mostly in personal and familial contexts. Second, on the micro-level of 'trajectories,' 'gender relations' were noticed. The male elderly were more or less different from one another, contingent on the phases of life. They turned out to take simple roles of performing 'outdoor duties' and to be passive in doing 'housework.' Contrary to the male elderly, the female counterparts proved to actively assume 'dual roles' in 'family affairs' and 'outdoor duties.' Such findings led to the observation of 'doing gender' in the biographies of the elderly and, furthermore, to capturing the fact that 'doing gender' is different, depending on the phases of life and sex. Finally, some implications for practice were drawn from the current findings with special reference to biography and gender relations.

Key words: biographical research, structure of biographical process, qualitative research, gender relations, doing gender, rural elderly

[논문 접수일 : 07. 10. 04 게재 확정일 : 08. 01. 31]